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6.25 전쟁의 트라우마와 치유
- 박완서 소설의 정신분석학적연구

2021 년 01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포파 안드레아

6.25 전쟁의 트라우마와 치유
- 박완서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지도교수 방 민 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포파 안드레아

포파 안드레아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월

위 원 장 김 종 욱

부위원장 손 유 경

위 원 방 민 호

국문초록

본 논문은 박완서(1931-2011)의 소설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박완서의 문학 작품의 심리적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박완서는 『나목』(1970)으로 등단하여 작가로서 경력을 시작했으며 페미니즘, 사회 비평과 고백적 글쓰기 등 다양한 주제로 한국 현대 문학의 최고 작가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박완서의 문학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기존 연구도 다양하며 지속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박완서는 한국사의 가장 인상적인 사건인 6.25 전쟁의 생존자로서, 이 전쟁은 작가가 그의 작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주제다. 본고는 6.25 전쟁과 관련하여 박완서의 전쟁문학을 중심으로 심층 연구를 통해 전쟁 트라우마 문제와 한국전쟁의 심리적 영향에 대한 넓은 심리적 통찰을 드러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본고는 박완서의 개인적 전쟁 경험과 글쓰기 경험의 관계를 보는 새로운 방식을 밝힌다.

2 장에서는 박완서의 주된 전쟁 소설 『나목』(1970), 「부처님 근처 」(1973),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1974), 『엄마의 말뚝』(1980-1991), 「그 가을의 사흘 동안」(1985),『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를 중심으로 6.25 전쟁 트라우마와 그 심리적 영향을 분석한다. 트라우마와 그 증상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에서 시작하여, 한국전쟁에 대한 각 인물의 개별 경험과 그것이 인물의 정신에 끼친 트라우마를 관찰함으로써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것이 증상 측면에서 무엇인지, 그리고 박완서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콤플렉스 문제를 문학 속에서 표현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가족 상실이 트라우마를 유발하면서 우울증, 불안, PTSD, 생존자의 죄책감 및 OCD 등 다양한 형태로 각 인물의 전쟁 트라우마 경험을 요약하는 주요 행동이 나타난다. 인물들을 살펴봄으로써 트라우마의 다양성, 예상치 못함, 작가 자신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박완서는 각 인물의 개인적 경험을 완벽한 사례 연구로 전환함으

로써 6.25 전쟁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효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3 장은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이해 과정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전 장은 트라우마의 시작점과 그 징후를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장에서는 트라우마의 치유가 주제가 될 것이다. 박완서는 전쟁의 심리적 영향과 그것이 수년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에 대해 자세하고 유려하게 소설화했는데, 이 장에서는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정확히 보고자 한다. 각 인물의 트라우마 여정을 분석함으로써 트라우마 경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의문이 발생한다. 이전 장에서 분석한 동일한 소설의 동일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 트라우마와 그 결과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을 관찰할 것이다. '탈출' 또는 '인식'이 분석의 핵심 단어로, 트라우마를 다룰 때 두 가지 반대 접근 방식을 묘사함으로 투쟁 도피 반응(fight or flight) 행동에 걸렸을 때 인간의 본능을 제시하고 각 선택의 결과적인 효과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4 장에서는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트라우마의 심리적 내용과 작가에 대한 기존 연구로 시작하여, 소설 뒤에 숨어있는 창작 과정과 작가의 심리적 경험 및 개인 트라우마 표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6.25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은 인물들의 심리적 반응을 분석할 때 자기 경험을 쓴 작가의 트라우마적인 과거를 무시할 수 없다. 작가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으며, 특히 오빠의 죽음이 많은 소설에 주요 주제로 발견됨은 작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소설 분석을 통해 심리학과 트라우마에 대한 작가의 지식 그리고 6.25 전쟁의 국가적 비극과 작가의 연관성을 이미 이해했다면 이제 작가 자신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인물의 분석에 쓴 증상과 치유의 개념으로 작가의 개인 경험도 자세히 보고자 한다. 전쟁에서 겪은 상처를 시작으로 박완서는 복합적인 전쟁 문학을 만들었다. 많은 동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작가는 국가 역사에서 비극적인 시대를 목격했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그녀의 집착은 예상을 뛰어 넘고 트렌드를 넘어서 자신의 문학을 낳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 전쟁 트라우마에 대한 작가 자신의 경험과 그것이 그녀의 글에 영향을 미친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작가 자신의 문학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이 장의 목표는 박완서 소설의 심리적 내용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것이다. 인물의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하여 작가의 개인 트라우마 증상과 치유의 관점을 통해 글쓰기로 제시된 작가의 심리적 여행을 분석하고자 한다.

박완서는 작품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인정받은 위대한 작가이며, 6.25 전쟁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유명한 작가이다. 6.25 전쟁 동안 직접 겪은 상처로 인해 박완서는 전쟁에 대한 선입견이나 예상을 뛰어 넘은 자신만의 문학을 만들어 내면서 복합적인 전쟁 문학을 집필한 위대한 작가로 평가된다. 박완서는 죽음과 최전선에서의 폭력 같은 전쟁의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트라우마 요소를 서술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작가는 전쟁의 덜 알려진 측면, 즉 전쟁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쟁이 준 영향 및 전쟁의 오래 지속되는 비가시적 결과를 제시한다. 박완서의 소설을 통해 전쟁의 심리적 영향, 트라우마의 무차별적인 범위와 그 주제에 대한 작가 자신의 지식을 알 수 있다. 자기 발견과 치유를 향한 박완서의 길은 트라우마의 심리적 범위와 그 형태에 대한 진정한 증언을 낳았다. 이것은 작가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심리적 경험과 여성이 겪은 전쟁을 밝히는 데 필요한 문학 작품을 만들었다.

***주요어: 박완서, 전쟁 트라우마, 전쟁문학, PTSD, 강박장애(OCD), 생존자의 죄책감, 자전적 소설, 픽션 소설**

***학번:** 2016-22569

목　　차

<국문초록>

1. 서론.....1

1.1. 연구사 검토와 문제 제기.....1

1.2. 연구 범위 및 시각.....9

2. 인물이 겪은 트라우마의 형식과 증상 16

2.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생존자의 죄책감을 느낀 인물의 경험...17

2.2. 우울증, 불안증과 강박장애(OCD) 가진 인물의 이야기 37

3. 소설에 반영된 트라우마 치료 방식과 인물의 경험 46

3.1. 트라우마로부터의 탈출과 치료의 불가능성.....47

3.2. 트라우마의 인식과 극복.....54

4. 박완서와 전쟁 트라우마의 개인적인 경험 68

4.1. 글쓰기를 통한 개인적 트라우마 증상의 이해.....70

4.2. 자전적 소설과 픽션 소설 비교를 통한 트라우마 치유의 제시.....75

5. 결론.....84

<참고문헌>

<Abstract>

1. 서론

1.1. 연구사 검토와 문제 제기

박완서는 해방 이후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은 작가이다. 그녀는 1970 년 《여성동아》에 장편소설 『나목』을 발표하면서 40 세에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 2011 년 사망할 때까지 그녀는 장편소설 15 편, 단편소설 100 편과 많은 동화, 수필 등을 출간하며 "뛰어난 이야기꾼이고 싶다"라는 소망을 이루었다.[1] 박완서의 작품은 처음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으며 지금까지 240 편 이상의 논문과 140 편의 에세이가 발표되었다. 장편소설 『나목』의 출간 이후 첫 소설집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1976)와 장편소설 『휘청거리는 오후』(1976)를 출간하여 당시 비평가들로부터 작가로서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관심도 얻었다.

박완서는 특수한 문학 작품을 저술한 위대한 작가로 평가되어 시간이 지나갈수록 새롭고 다양한 해석 방법과 연구자들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생성되었다. 1970 년대 김주연은 박완서가 "우리 현실에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는 작품"을 썼다고 비평하며, 그녀의 소설과 중산층의 허위와 물질주의적인 당시 사회의 연결에 초점을 맞추었다.[2]

여성 해방 문제가 강해지고 '여성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후 박완서에 대한 논의는 새롭게 페미니즘적 측면을 갖게 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성장 가능성, 모녀 관계는 그녀의 문학 작품의 주된 주제인 당시의 비판이 강조

---

[1] 조인순, 「박완서 체험의 글쓰기를 통한 트라우마 치유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5, 4 면.

[2] 김주연, 「순응과 탈출- 박완서의 근작 2 편, 「부처님 근처」와 「지렁이 울음소리」, 『문학과지성』, 1973 겨울호.

하는 문제 중 일부에 불과하다. 1990 년대 거대 담론에서 미시 담론으로의 변화는 박완서 문학에도 새로운 해석 방향을 가져왔고 그녀는 '대가'로 간주되어 많은 감사를 받았다.[3]

박완서가 6.25 전쟁을 주제로 소설을 지속적으로 썼음을 알게 되면서 6.25 전쟁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일어나고 새로운 논의들이 생겨났다. 박완서는 위에 제시된 주제를 다루는 소설 외에도 6.25 전쟁을 주요 역사적 배경으로 삼는 소설을 많이 발표했다. 따라서 이 주제를 둘러싼 새로운 비평이 촉발되었다. 6.25 전쟁을 다룬 박완서의 소설에 대해, 전쟁을 국가의 트라우마적 과거의 표현으로, 또는 작가가 자신의 개인적인 투쟁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로 논의하는 새롭고 다양한 이론이 등장했다.

정규웅에게 전쟁의 경험은 개인적인 질병이 아닌 것이고 작가 개인의 경험을 넘어 시대의 경험이 된다. 인물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그는 소설을 역사적, 교육적 가치와 연관시키고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전체 경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4] 김영민과 권영민은 소설의 리얼리즘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은 전쟁을 작품의 주요 주제로 강조하지 않고, 6.25 전쟁은 박완서가 시대의 삶의 방식에 대한 비판하고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묘사하는 배경일 뿐이라고 보았다.[5] 비슷한 방식으로 이태동은 박완서 문학이 6.25 전쟁과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신의가 순수한 인간성을 얼마나 무참히 파괴하고 억압하는지를 밝히고 있다"고 보았으며, 신수정은 순결하고 성스러운 인간이 어떻게 전쟁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가"라는 점을 강조한다.[6]

실제 목격자의 눈으로 시대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완서 소설의 역사적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작가가 쓴 전쟁 소설의 전체 경험을 현실

---

[3] 김정은,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에 나타난 여성 목소리의 의미 연구」, 2 면.
[4] 정규웅, 「『목마른 계절』의 세계」, 『박완서론』, 삼인행, 1991.
[5] 권영민, 「박완서와 도덕적 리얼리즘의 성과」, 『박완서 문학 앨범』, 웅진출판사, 1992.
[6] 이태동, 「나목의 꿈」, 『박완서』, 이태동 편,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적, 역사적인 경험으로만 제한할 수는 없다. 이것은 역사적, 국가적 요소를 넘어 개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종류의 연구자를 낳는다. 박완서에 대해 "자기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쓴 작가"라고 평가하는 연구자 김윤식이다. 그는 이 작품들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전쟁 경험은 작가가 자신의 기억을 사용하여 내용에 깊이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다.[7] 정호웅은 박완서의 작품에서 전쟁 경험을 다룰 때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글쓰기의 불가능을 언급한다.[8] 이러한 전쟁 소설의 반복은 글쓰기의 원인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문애와 소영현은 『나목』, 「부처님 근처」 등의 소설에 대해 글쓰기의 행위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강조한다. 그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는 작가가 전쟁 경험과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고백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향우, 나소정은 글쓰기의 기원을 분석하며 그녀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묘사하는 과정은 치유에 대한 작가의 욕망을 담은 것일 뿐만 아니라, 억압적인 현실에 복수하면서 그녀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라 논의한다.[9]

트라우마, 특히 한국 전쟁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박완서와 정신 분석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한국의 문학 연구에서는 정신분석학이 서구에서만큼 인기가 있지 않으므로 박완서 작품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의 한계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박완서의 1970 년대 심리소설 『욕망의 응달』과 『오만과 몽상』에 대해 프로이트와 칸트의 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김용태와 신현순을 제외하고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작가의 단편 소설과 심리적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주인공의 심리 상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평을 하고있다. 다만 이러한 심리 묘사가 작가의

---

[7] 김윤식, 「박완서과 박수근」, 『박완서론』, 삼인행, 1991.
[8] 정호웅, 「상처의 두 가지 치유방식」, 『작가 세계』, 8 호 봄, 세계사, 1991.
[9] 이향우·나소정, 「복수와 치유의 전략과 서사」, 『인문과학연구논집』,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7-32 면.

사회 비판의 도구 및 반공주의적 사고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된 주제라고 본 점은 아쉽다. 오빠의 죽음은 심하게 부과 된 심리적 주제이며 작가의 많은 작품에서 사용되는 주제로서 그 의미와 목적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었다. 김영미에게 오빠의 '욕된 죽음'은 억압의 상징으로서 사회적 비판에 대한 논쟁의 원천이 되었고, 그는 트라우마에 대해 사회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았다.10 비슷한 방식으로 조인수는 오빠의 죽음에 대한 묘사를 작가의 이데올로기적 싸움과 연결시킨다. 심리적 분야에 대한 언급은 검열을 피하기 위한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된다.11 오빠의 죽음에 관해서는 사회가 트라우마의 원인으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치유의 개념도 추진되고있다. 이경재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공통적인 트라우마와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을 평화와 변화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오빠의 죽음 문제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표현한 것이라 보았다.12 같은 관점에서 홍혜미는 오빠의 죽음을 가족 전체의 상처로 강조하며 “오빠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머니와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 치는 여성으로 상처의 치유 방식을 제시한다”고 지적한다.13

박완서 소설의 심리적 요소에 관심을 가진 위의 연구들은 전쟁 상처의 원인, 주로 전쟁이 초기에 이 작가에게 입힌 상처와 그것을 작가가 소설에 활용한 방식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쟁의 상처와 그것이 전쟁 중 자신과 가족들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관심은 많은 연구자들이 취하는 주요 접근 방식이다. 오빠의 상실, 아버지의 상실, 곤란한 모녀 관계는 많은 연구에서 전쟁의 상처로 확인된 모티브이다. 그러나 이 요소들이 작가의

---

10 김영미, 「1970 년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은폐와 폭로의 문제」. 한국현대문헉연구, vol 47, 2015, 413-333 면.

11 조인순, 「박완서 체험의 글쓰기를 통한 트라우마 치유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5

12 이경재, 「박완서 소설의 오빠 표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2011.

13 홍혜미 ,「박완서 문학에 투영된 6.25 전쟁」.” 단산학지, vol. 5, 1999, 366 면.

글쓰기 경력에 미친 영향은 인정하더라도, 이것을 억압된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만 읽는 것은 제한적이다. 박완서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회의 역사적 측면과 작가의 비판적 정신에 대한 훌륭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자신의 정신과 접촉하는 작가로서의 박완서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접근 방식을 간과한다.

박완서는 자신의 감정과 정신을 접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여 설명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찰을 통해 작가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자신의 치료사가 되고 글쓰기는 이를 위한 도구가 된다. 박완서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분석 창작 행위를 통해 자기 감정과 심리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러한 자기 발견과 작가로서의 심리적인 접근에 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한 예는 많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작가는, 이전 연구자들이 실용적인 접근을 위해 간과해 온 심리적 요소가 풍부한 문학 작품을 창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심리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이 측면을 상당히 간과해온 듯 보인다. 트라우마의 근원에 대한 통찰과 트라우마 치유의 가능성이 반공주의적 비판에 닻을 내리고 있지만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진정한 트라우마의 출현 방식 및 인간 심리의 행동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박완서는 작가와 소설의 창작 과정뿐만 아니라 소설 속의 심리적 깊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경로로 정신 분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심리적 작가다. 작가의 전쟁 소설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통해 전쟁의 상처와 치유의 방법, 그리고 소설에서 그 사용의 의미가 밝혀졌지만, 상처가 가해진 순간과 그것이 치유되는 순간 사이의 심리적 발전을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글쓰기를 통해 스스로를 치료하려 하는 작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또 취해야 할 접근 방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또한 이전 연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작가 자신의 경험과 자기의 문학 창작 사이의 연결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심리적 경계를 정신분석의 영역으로 밀어 붙인다. 전쟁에 대한 작가 자신의 경험과 그런 무서

운 과거를 작품 속에 표현하기로 선택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소설에 내포된 주관성을 무시할 수 없다. 박완서는 등단작 『나목』을 시작으로 전쟁의 폭력과 그것이 그 시대 가족에게 준 영향을 주요 주제 중 하나로 파고 들었다. 전쟁의 희생자인 작가는 자신의 인물이 받는 고통으로 독자를 감동시키고 소설 속에 나타난 자전적 요소로 독자가 더 공감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에 깊이를 더한다. 6.25 전쟁이 인간의 정신에 미친 영향에 대한 그녀의 관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박완서는 전쟁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오래 지속되는 영향도 묘사한다. 이러한 효과는 신체에 국한되지 않고 심리적으로 흘러 가게 된다. 6.25 전쟁의 생존자로서 작가는 당시의 끔찍한 사건의 목격자였으며, 그 시대가 그녀를 현재까지 얼마나 따라왔는지 볼 수 있다. 개인의 비극을 가진 한국 전쟁의 목격자일 뿐 아니라 생존자로서도 작가가 쓴 작품들은 더 큰 공감을 얻었다. 박완서에게 전쟁의 공포와 분단의 아픔은 수년 동안 잊을 수 없었던 경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녀의 글쓰기를 형성하고, 그녀의 과거와 고통은 젊은 자아에 대한 글로 또는 인물들의 페르소나로 옮겨졌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러한 연관성은 인정받았다. 하지만 박완서 전쟁소설의 분석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작가의 소설은 전쟁의 공포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져온 고통을 묘사함으로써 한국인의 과거에 매우 중요한 시대에 대한 역사적 호기심을 충족시킨다. 작가 또한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 중 하나였고 그녀의 가족이 전쟁의 영향으로 분열되었다는 사실은 소설의 개인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게 만든다. 어린 시절과 한국 전쟁을 겪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서전 소설의 존재가 확인되고, 그녀의 과거와 소설 속 인물의 유사점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연관성을 지적한다.

박완서의 전쟁 소설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작가의 기억을 서술하는 주관적 글쓰기를 통해 크게 공감할 만한 국가적 비극을 재현한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볼 수 있다. 상충되는 이데올로기, 가족 상실 및 생

존을 위한 투쟁과 같은 주제가 계속해서 분석되어 왔지만, 앞서 언급한 트라우마의 개념으로는 분석이 부족하다. 트라우마 연구는 서양 문학에서 상당히 최근에 인기를 얻은 장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주제와 관련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 문학에서 트라우마 표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화한다. 본고는 박완서의 소설에 나타난 한국 전쟁의 영향으로 받은 트라우마와 그것의 의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박완서의 소설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논의들은 많은 연구에서 인정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되었지만, 주로 촉발 순간과 피해자의 초기 감정 반응에 국한되어있다. 즉, 트라우마와 소설의 내러티브 내용 사이의 연관성을 관찰하여, 트라우마를 일으킨 사건이 정확히 무엇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물과 전체 서사에 어떤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 모녀 갈등, 생명의 상실 등은 트라우마 관련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반복적인 주제이다. 이것들이 전쟁 경험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그 그림자 아래에서 발전하면서 결과적으로 인물들에게 충격적인 경험을 유발하여 감정 상태를 저하시킨다.

그러나 박완서의 소설은 정신분석적으로 분석해야 할 내용으로 가득 차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해 보인다. 전쟁으로 인한 인물의 정신적 쇠퇴는 인정되어 왔지만 더 자세히 관찰한 경우는 많지 않다. 그 대신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티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모티프는 전쟁이 사람에게 미치는 신체적, 정서적 영향을 확인하게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 '전쟁의 트라우마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초기 감정 반응을 넘어서 심리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나타나는가?' 전쟁은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사건으로, 즉각적인 영향도 끔찍하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때때로 더 나쁘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전쟁 이후 인물의 심리적 발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슬픔, 고통, 상실 및 공포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넘어서 트라우마의 장기적인 심리적 영향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더 나아가 박완서와 관련하여 전쟁 주제에 대한 연구들은 이 주제를 선택하는 저자의 목적과 이 글쓰기 경험이 갖는 의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다.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글쓰기가 사람들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드러낸다고 인정하는 것, 자기 과거를 재현함으로써 카타르시스(catarsis)를 얻는다고 보는 것, 증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시대를 통찰한다는 역사적 가치에 주목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트라우마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상으로 심리적 측면에 대한 심층적인 관심은 주어지지 않았다. 박완서의 작품에서 제시한 트라우마에 대하여, 작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도구로 글쓰기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뿐이고 그 트라우마의 촉발 사건(오빠의 죽음, 긴장된 가족 관계 등)만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오래된 인터뷰[14]에서 박완서는 자신의 인생 경험의 일부를 작품에 넣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작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강조한다. 또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 박완서의 경우 트라우마가 정확히 어떻게 나타났으며, 작가의 문학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남는다. 또한, 반복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도구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트라우마의 증상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과 잠재 의식 그 자체가 정신 분석학에서 복잡한 문제이지만, 글쓰기가 트라우마의 치유법으로 알려져 있다면 '그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그 트라우마의 증상으로서 생각할 수는 없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본고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박완서의 전쟁 소설 작품들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인물의 내면 세계와 작가의 개인 트라우마의 연결에 집중하며 서사 속에서 트라우마의 존재를 관찰하고자 한다. 소설에 나타나는 트라우마의 존재와 그 심리적 영향을 분석하여 전쟁 문학의 역사적, 고백적 가치를 넘어서 박완서의 전쟁 문학의 심리적 깊이를 인정함으로써 정신 분석적 잠재력을 강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14] 현대문학 : https://www.youtube.com/watch?v=zNxgKOahpE8

1.2. 연구 범위 및 시각

박완서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이데올로기 전쟁의 한가운데 붙잡힌 무고한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전쟁에 직접 연루된 군인은 아니지만 그녀의 삶은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6.25 전쟁과 분단의 문제는 그녀의 많은 소설에서 주요 주제이며, 전쟁은 작가로서의 경력을 촉발시킨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집중한 다작 작가지만, 전쟁이 현재에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여파를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으로 이와 같은 배경을 그려 냈다. 전쟁 여파의 심리적 측면은 작가가 소설에서 주장하는 문제이며, 그녀는 트라우마의 존재를 강조했다.

트라우마 연구는 최근 몇 년 간 인기가 크게 증가한 분야이다. 최근에는, 전쟁의 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인도주의적인 욕망이 매체를 지배하는 사회 분위기는 세계관과 변화의 욕구에 영향을 미치며, 트라우마 연구의 인기와 그 분야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나타난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프로이트의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한다. 트라우마라는 개념은 갑작스럽게 비극적인 사건에 휩싸인 경험에 대한 반응을 가리키며, 이는 대부분 지연 방식으로, 억제할 수 없는 반복된 환상이나 다른 관입 현상으로서 정의된다. '논란과 두려움'의 요인과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뜻밖'[15]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다른 흔한 스트레스의 유형과 구별할 수 있게 한다.[16]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는 전쟁에서 돌아온 참전 용사에 대한 프로이트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트라우마 연구와 정신 분석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트라우마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

[15] Cathy Caruth,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4.

[16] Habeeb, Zahraa Qasim, "Writing Trauma in Iraq: Literary Representations of War and Oppression in the Fiction of Sinan Antoon" (2015), MSU Graduate Thesis, p.9.

유발될 수 있는 복잡한 현상인 것이 밝혀졌다. 전쟁, 강간, 자연 재해 또는 충격적인 사건의 목격 등 다양한 원인으로 트라우마가 나타날 수 있다. 트라우마는 사람마다 다르다. 압도적인 부정적 감정을 느끼거나 울음을 멈출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반면, 무감각하고 아무런 쾌락이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인간 정신은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실제 사례부터 문학 작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주제가 되었다.

정신분석학에서 문학의 사용은 수년에 걸쳐 논쟁이 되어 왔지만, 프로이트 또한 문학을 정신분석의 연구 자료 중 하나로 삼았으며 나중에는 "문학이 '생각'하고 복잡한 심리적 문제를 재현할 수 있다"는 논의도 나타난다.[17] 또한 캐시 캐루스(Cathy Caruth)는 문학이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묘사하는 이유에 대하여 "문학은 정신 분석과 마찬가지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콤플렉스 관계에 관심을 가지"며, "트라우마적인 사건의 두 측면을 보여주어 그 사건에 대해 아는것과 모르는 것들을 나중에 반복 강박으로 표현한다"[18]고 설명한 바 있다. 트라우마적인 담론은 개인 지향적인 화법으로, 청중을 몰입시키기 위하여 트라우마적인 기억력의 특징인 고통스러운 양면적 묘사를 강조한다.[19] 또는 이런 경험이 개인 의식의 렌즈를 통해 인물의 기억 능력에 각인되어, 의식적인 기억과 구조적인 플롯보다는 감정과 무의식적 연상을 통해 기억을 탐구한다.

그러나 트라우마를 근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면서 비평과 작가의 입장은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다만 근본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트라우마 서사로 인정되는지 아닌지를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다루는 작품들은 독자와 그의 관계가 감정과 트라우마적인 경험에 대한 의식으로 바탕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록이나 다른 서사적 형식으로 발생할

---

[17] Jean-Michael Rabaté (2014).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Literature and Psycho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2.
[18] Cathy Caruth. 앞의 책, p.3.
[19] Laurie Vickroy, “Trauma and Survival in Contemporary Fiction”. Charlottesville: U of Virginia P, 2002, p.3.

수 있어도 트라우마적인 감정을 전달하기위해 형식과 내용의 분열(fragmentation)과 실험이 트라우마 서사에서 나타나기도 한다.[20] 따라서 트라우마 작품을 다루는 대부분 작가들의 문학 기술은 실험적이며 혁신적인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의식과 구조에 과정, 리듬과 트라우마의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말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간이기 때문에, 문학은 상상력과 상징적 실험으로 독자가 이런 공포스럽고 낯선 경험을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다.

본고는 정신 분석학에서의 문학 사용을 참조하여 박완서의 전쟁 소설에서 트라우마를 표현하는 방식과 그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한국 전쟁과 분단을 다룬 소설 작품들 중, 저자의 삶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개괄하는 자서전적 소설 그리고 전쟁의 발발과 그것이 희생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허구적인 소설들이 분석 대상이 될 것이다. 기존 연구에 대한 이해와 분석의 대상으로 인물의 경험으로 인해 서사에서 트라우마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박완서의 글쓰기와 그의 경험 및 트라우마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공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인 모든 소설들은 전쟁을 여로 형식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들의 주요 아이디어는 전쟁의 오래 지속되는 영향과 트라우마의 힘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자전적 소설에서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서울로 이주하고, 학생이 되고 전쟁이 시작된 후 가족을 잃고, 어머니와의 긴장된 관계와 결혼을 경험하는데, 이는 작가의 삶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그녀의 과거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내면 세계와 그것에 끼친 전쟁의 영향을 재고할 수 있다. 이 소설들에서 작가는 외상의 중요한 원인으로 출생 장소를 떠남, 오빠의 죽음과 어머니와의 모녀 갈등은 다시 체험하며 전쟁 전 인생에 대한 인식도 제시한다. 『엄마의 말뚝』에서 출생 장소에서의 어린 시절, 도시로 이사한 것과 엄마와 오빠의 관계도 회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야기의 뒷부분에서는 전

[20] Habeeb, Zahraa Qasim, 앞의 책, p.11.

쟁이 시작된 후 오빠가 당시의 정치적 움직임에 관여했으며, 그의 죽음과 난민이 된 생활이 묘사된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30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전쟁은 그녀의 가족, 자신의 마음의 평화와 어머니의 안녕에 대한 힘을 갖고 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나 더 자세한 방식으로 작가의 인생과 전쟁의 경험을 그려낸다. 서울로 이주한 후에 전쟁이 시작되고 그녀의 오빠는 군대에 징집되어 난민 생활을 경험한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이어 가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오빠의 모습과 삶의 힘든 시간들을 제시한다. 이 작품은 전쟁 동안의 삶에 대해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공포를 가한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한다.

박완서의 허구적인 소설에서 6.25 전쟁은 등장 인물의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요소가 된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전쟁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정신 상태에 주는 스트레스는 무시할 수 없다. 모든 인물들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소설에서는 치유가 불가능한 트라우마의 존재와 그 영향을 볼 수 있다. 『나목』은 전쟁 중 공격으로 두 오빠를 잃고, 두 아들을 잃은 후 회복하지 못한 어머니를 돌보는 '이경'이라는 인물을 다룬다. 전쟁은 그녀에게 트라우마의 근원이 되었고, 전체 이야기는 과거로부터 탈출함으로써 그 트라우마를 처리하려는 시도를 중심으로 이루진다. 「부처님 근처」에서는 전쟁의 또 다른 희생자인 화자와 그녀의 어머니를 다루며 모녀 갈등의 모티브가 다시 한번 제시된다. 그들은 전쟁 중에 가족의 아버지와 아들의 충격적인 상실을 경험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 트라우마가 20 년이 지난 후 주인공을 지배한다. 전쟁의 위험에 맞선 어머니의 매춘을 목격한 여성은 반복적인 결혼으로 과거를 탈출하려 했으나 끝내 실패했으며 그 시대의 부끄러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그 가을의 사흘동안」의 주인공은 50 년 전 강간당하고 낙태했던 전쟁의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다. 그녀가 낙태 수술을 하는 여의사처럼 살기로 선택한 것은 과거를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권

력을 되찾기 위한 실패한 시도였다. 이 소설들은 전쟁 이후 허구적인 인물들의 심리적 진화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쟁 중 괴로워하는 청춘을 제시하면서 박완서 자신의 심리적 발달의 배경이 된다. 자전적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허구적인 등장 인물의 이야기도 전쟁 경험을 표현하는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가 인간 정신을 지배하는 힘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다.

따라서 박완서의 작품은 전쟁 경험, 그녀의 삶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전쟁에 대한 작가의 전체 문학은 더 복잡한 가치와 내용을 담고 있다. 심리적 문제의 제시로 트라우마 문제를 강조하며 그것을 더 분석해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트라우마는 이 모든 주인공의 삶과 작가 자신의 현재에서 주요 고민으로 제시된다. 기존 연구에서 트라우마의 기원과 그 영향은 인정되었지만, 그것이 증상적으로 나타나는 방식 그리고 작가와 그의 작품이 연결되는 의미는 무시된 듯 보인다. 심리적 묘사로 가득찬 소설의 내용과 트라우마에 대한 작가의 인정된 관심도 트라우마의 텍스트적 존재를 보여주며, 그 이해를 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는 박완서와 그의 전쟁 관련 문학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더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박완서는 그녀의 심리적 문제와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루기 위해 인간 정신의 작용에 큰 관심을 보인 작가 중 한 명이며 그의 소설은 심리적 내용과 지식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인물의 경험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독자에게 알리는 데 성공했다. 작가의 전쟁 문학을 분석할 때 전쟁의 물질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적 여파도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적인 비극이나 가족의 손실은 가난과 가혹한 생활이라는 시대상을 제시했지만, 인물들의 내면 묘사는 인간의 진화를 정의하는 트라우마의 감정적 영향이 무엇인지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문학과 정신분석의 관계를 출발점으로 삼아 트라우마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과 그 심리적 발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2 장에서는 트라우마의 증상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분석을 시행할 것이다. 각 인물에 대하여 의학적

접근 방식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개별적인 트라우마와 그 증상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트라우마에 대한 작가 자신의 생각과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이어지며, 이는 자신의 전쟁 트라우마와 글쓰기의 경험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우선, 본고에서는 서사에서 트라우마의 증상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각 소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포함한다. 트라우마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전쟁을 경험한 각 인물들의 트라우마의 다양한 재현에 집중하고자 한다. 전쟁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 즉각적인 여파 및 장기적인 결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트라우마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방식과 그것이 어떻게 서사로 표현되었는지를 식별할 것이다. 이는 트라우마가 표현되는 방식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드러난 각 심리적 형상화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비교를 통해 트라우마의 심리적 복잡성을 강조한다.

둘째, 치유의 개념이 서사에서 제시된 방법도 분석할 것이다. 박완서의 소설이 글쓰기를 통한 치유라는 기존 연구가 있었지만, 각 인물을 위한 치유가 정확히 어떻게 인식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드러내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해명되지 않았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은 그 증상을 식별하는 것처럼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인물의 고통과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이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전쟁 외상으로부터 탈출과 인식의 경우로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목격할 수 있다. 각 인물은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반응하는 방식도 다양하지만 치유의 필요성은 공유했다. 치유의 필요성과 이것이 모든 인물의 경우에 나타나는 방식을 관찰함으로써 박완서가 그려낸 전쟁 트라우마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형상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사에서 트라우마의 존재를 이해하고 작가가 그것을 서사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만든 후, 작가의 트라우마와 전쟁과 그녀의 개인적 관계에 집중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트라우마에 대한 세웠던 지

식과 박완서 소설에서 허구적·자전적 소설의 내용의 차이를 논의하면서 작가의 트라우마와 이러한 문학 작품의 창작 과정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정신은 복잡한 시스템이며 잠재 의식은 신비한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작가와 전쟁 경험은 저자의 창작 과정과 그 뒤에 있는 심리학에 대한 훌륭한 연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박완서가 글쓰기를 시작한 것에 전쟁이 끼친 영향을 인정한다면, 전쟁이 그의 생애에 남긴 트라우마와 많은 작품에서 전쟁이 중심이 되는 관계로 더욱 깊이 파고들 수 있다. 증상과 치유의 개념, 자전적 소설과 허구적 소설, 작가와 허구적인 인물을 비교하여 이 논문은 문학 창작에 포함된 심리학적 내용, 박완서 문학의 깊은 정신적 잠재력을 강조함으로써 창작 과정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인물이 겪은 트라우마의 형식과 증상

2 장은 분석 대상 소설들에서 전쟁 트라우마가 표현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트라우마와 인간의 정신에 나타나는 증상을 서술하고 전쟁 문제를 기린 박완서의 소설을 분석할 것이다. 『나목』, 「부처님 근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엄마의 말뚝』,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와 「그 가을의 사흘동안」이라는 전쟁 소설과 그 인물들의 트라우마를 찾고 그것을 식별하는 방법이 분석의 주요 초점이 될 것이다.

트라우마에 대한 기전 연구에 따르면, 그것의 영향은 미묘하거나 교활하거나 완전히 파괴적일 수 있으며 그 증상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지속적인 피로, 수면 장애, 악몽, 재발에 대한 두려움, 플래시백(flashback)으로 인한 불안, 우울증이 포함된다. 다양한 증상을 통해 트라우마를 식별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특히 트라우마의 주요 증상인 PTSD, 생존자의 죄책감, 우울증, 불안 및 반복적인 행동(OCD)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2 장 1 절에서 PTSD 의 존재와 생존자의 죄책감을 확인하고, 이 소설의 주인공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드러내며 이것이 어떻게 트라우마와 연결되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장 2 절에서는 트라우마적인 인물의 초상화를 더욱 완성하기 위해 트라우마의 추가적인 증상으로 우울증, 불안 및 강박장애가 표현되는 방식을 제시할 것이다.

본고는 전쟁의 영향을 받은 각 소설의 인물을 중심으로 전쟁 트라우마의 복잡성과 매너를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각 인물의 내면과 정신 상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구현할 예정이다.

2.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생존자의 죄책감을 느낀 인물의 경험

박완서의 소설에서 자주 발견되는 트라우마의 주요 증상 중 하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이고 이는 전쟁 생존자들과 관련된 주요 심리적 문제라는 점에서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전쟁의 심리적 영향에 중심으로 연구를 하다가 이 증상은 관찰이 필요한 가장 명백한 증상이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첫 번째 인물은 『나목』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이경이다. 한국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여성으로서 그의 마음을 탐구하기 전에 먼저 그녀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목』에서 주인공 이경의 삶 이야기와 한국 전쟁 동안 살기위한 노력과 병든 어머니를 돌보는 그녀의 투쟁을 볼 수 있다. 전쟁 전 아버지의 사망과 전쟁의 결과로 두 명의 오빠의 죽음으로, 그녀는 초상화 제작 상점에서 일하는 동안 독립을 유지하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둠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과 독립에 대한 그녀의 욕망은 이야기의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옥희도, 조와 태수의 관계로 그것이 더 강조된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감정 상태는 그녀의 행동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경은 여러 가지 성격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인물이다. 한국 전쟁 생존자로서 그녀의 생각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에 대해 더 정확한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전과 전쟁이 시작된 후의 구분을 보면 그녀의 삶과 감정의 사이에도 명확한 구분이 있다. 이것은 현재의 삶과 두 명의 오빠와 아버지와 함께 대가족의 일원으로 있었던 과거의 행복한 삶 사이의 비교를 통해 묘사된다. 이러한 비교는 전쟁의 시작이 이경의 감정적 몰락의 전환점이기도 했으며, 몰락 문제와 전쟁의 영향을 더 연결시켜준다. 소설의 시작 부분은 그녀의 감정 상태와 그것에 대처하려는 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녀가 자기의 감정적 몰락의 원인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신분석학적으로도 이런

태도가 예상되는데, 이는 건강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해로운 효과가 있다. 아이러니한 반면에서, 조와 성관계를 맺으려는 그녀의 시도는 충격적인 플래시백의 사례가 된다. 그들이 있었던 방의 어두움과 빛의 발작이 트리거 요소가 된다. 이후 그녀는 두 오빠들의 충격적이고 끔찍한 죽음과 연결된 공황과 불합리한 상태에서 엉망진창의 기억에 직면한다.

> 나는 그가 어둠 속에서 거침없이 변모해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웠다. (...) 내 나는 조의 얼굴을 찾기 전에 핏빛으로 물들어 보이는 침대 시트 보았다. 핏빛 시트… 핏빛 시트 오오 핏빛 시트... 내 기억은 터진 봇물처럼 시간을 달음질쳐 거슬러 올라갔다. 노오란 은행잎, 거침없이 땅으로 떨어지던 노오란 은행 잎, 눈부시게 슬푸도록 아름답던 그 노오란 빛들도 마침내는 내 기억의 소급을 막지는 못했다. 나는 잊은 줄 알았던, 아니 교묘하게 피하던 어떤 기억과 정면 부딪쳤다. 막다른 골목으로 쫓긴 도망자처럼 체념하고 나는 그 기억을 맞아들였다. 어머니가 정성들여 다듬이질한 순백의 호청을 붉게 물들인 처참 한 핏빛과 무참히 찢겨진 젊은 육체를. 얼마만큼 육체가 참담해지 면 그 앳된 나이에 그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지 않을 수 없나, 그 극한을 보여주는 끔찍한 육신과, 그 육신이 한꺼번에 쏟아 놓은 아 직도 뜨거운 선홍의 핏빛을 나는 본 것이다.[21]

이 사건 이후에 그녀는 더 행복한 인생을 얻기 위해 두 오빠의 죽음과 그 사건을 일으킨 요소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 플래시백은 트라우마적인 본질에서 나타났지만 오빠들의 끔찍한 사망을 다시 경험하면서 치유를 위한 욕망이 일어나게 된다. 이 새로운 태도가 그녀의 정신적인 상태를 일으킨 것들에 대해 세부적이고 철저하게 탐구하게 만든다.

충격적인 사건의 한 부분은 집의 하인의 집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오빠들의 시신을 찾는 데 있다. 시각적 상실과 그러한 상실로 인한 정서적 고통에 직면한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며칠 동안 충격에 시달리는 정상적인 반응을

[21] 박완서, 『나목』, 세계사, 1995, 211 면.

보인다. 그러나 외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인공의 경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더 복잡한 모양을 지니고 있다. 사건의 충격을 더욱 가중시키기 위해 이경은 그녀가 골방에 그들을 수용할 생각을 내놓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오빠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직면한다. 그녀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골방에서 잠을 자라는 생각의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 되었다. 이것은 생존과 죽음에 대한 욕구와 전쟁이 심화되기를 바라는 소망, 죽음과 분명하게 관련될 수 있는 소원을 더 잘 보여주는, 생존자의 죄책감에 대한 촉발 사건이 된다.

오빠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남성 자손에 대한 어머니의 명백한 선호는 처벌과 구출에 대한 그녀의 소망을 강화시킨다.

>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렇지만 은행나무는 너무도 곱게 물들었 고 하늘은 어쩌면 저렇게 푸르고 이 마당의 공기는 샘물처럼 청량하기만 한 것일까.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살고 싶다. 죽고 싶다. 문득 전쟁이나 다시 휩쓸었으면 싶었다. 오빠들이 죽은 후에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가 죽은 후에도 타인의 인생이 있다는 건 참을 수 없다. 다시 전쟁이 몰려 왔으면 지금의 나는 전쟁에 의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비롯된 내 전쟁에 대한 갈망은 하루하루 그 열도를 더해 갔다. 전쟁이 끊임없이 되풀이됐으면.[22]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전쟁은 그녀에게 신호가 된다. 자신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구원에 대한 그녀의 욕망은 전쟁으로 일어난 고통과 연결되다. 트라우마 생존자들 중에서 자기의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자기 해를 사용하지만 이경의 경우에 그녀의 자해의 근원은 전쟁이다. 다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나중에 그녀는 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생각한다.

---

[22] 위의 책, 231 면.

「나 때문이었을까? 좀더 대담하게 그 문제와 대결했다.

내가 전전긍긍 두려워한 건 실은 부서진 지붕이 아니라, 바로 오빠들의 죽음이 꼭 나 때문일 것 같은 가책이었다. 오빠들을 행랑방 벽장에 감추자는 생각을 해낸 것이 바로 나였으니까.

나는 오빠들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마치도로 두려워 구 생각을 몰아낸 대신 헐어진 고가라는 새로운 우상을 외경으로 섬겼던 것이다.

순전히 내가 서둘러서 그 관속 같은 골방속에 그들을 밀어 넣지만 않았던들 그 속에서 벌이진 처참한 일이 아무리 충격적이었대도 헐어진 지붕 앞에서 허구한 날을 그렇게 떨지는 않았을 게다.

비록 한쪽 날개를 잃었어도 남은 추녀는 여전히 하늘을 향해 우아한 호를 그리고, 담장의 사괴석은 오랜 연륜과 전화에도 불구하고 품위 있고 고고했다.

(...) 다시 한번, 「나 때문이었을까?

나는 내가 던진 질문의 화살에서 여유 있게 비켜났다. 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전쟁 때문이기도 했고 어쩌면 그럴 팔자 일지도 모른다. 나는 내 허물을 딴 핑계들과 더불어 나누어 갖기를, 나아가서는 내가 지은 허물만큼 그동안 나도 충분히 괴로워했다고 믿고 싶었 우상 앞에서 한껏 우매하고 위축됐던 나는 진상 앞에서 좀더 여유 있고 교활했다. 나는 오빠들의 죽음에 나 말고 좀더 딴 핑계를 대기로 했다. 그리고 나에겐 좀더 관대하기로. 관대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미덕일까.[23]

PTSD 증상을 보여주는 다른 작품은 단편소설 「부처님 근처」다. 이 소설의 이름 없는 주인공은 몇 년 후에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을 다뤄야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들을 위한 제사와 이에 필요한 과정들을 위한 자기 어머니의 꾸준한 노력도 참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과거에 대한 플래시백 특히 6.25 전쟁이 현재 삶에 일어난 장면으로 이 가족의 심리적인

[23] 위의 책, 244 면.

원천, 증상과 이해를 발견할 수 있다. PTSD 가 제시된 첫 번째 장면은 다음과 같다.

> 그러나 나는 무서워서. 앞서가는 사람이 행여 돌아가볼까요, 돌아다보는 그의 얼굴이 꼭 피투성이의 무너져 내린 살덩이일 것 같아 나는 무서웠다. 나는 지독스러운 험오감으로 몸을 멀며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다. 내 처녑 시절,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나는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보냈다. 무서운 게, 무서워하며 사는 게 지긋지긋했다.[24]

여주인공은 몇 년 후에 그 당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아버지와 오빠들의 죽음을 끔찍한 플래시백으로 다시 경험하게 된다. 이 소중한 가족들의 죽음과 관련된 끔직한 이미지는 그녀의 심리를 다시 압도한다. 앞에 있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간단한 산책도 불안과 끔찍한 이미지로 가득한 경험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런 트라우마적인 경험의 몇 년 후에 일어난 피로와 병 등의 상태도 PTSD 와 관련된 심리적인 중상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PTSD 의 영향은 깨어 있는 상태를 넘어 잠든 상태에도 영향을 준다.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트라우마적인 경험은 꿈꾸는 상태에도 불안과 공포로 가득하다.

> 내가 삼킨 죽음은 여전히 내 내부의 한가운데 가라 걸려 체증처럼 신경통처럼 내 일상을 훼방 놓았다. 나는 여전히 사는 게 재미없고 시시하고 따분하고 이가 들끓는 누더기처럼 지긋지긋해 벗어 던질 수 있는 거리면 벗어 던져 흠뻑 방망이질을 해주고 싶었다. 간혹 꿈에서 피 묻은 얼굴이라도 보면 식은땀이나 실컷 흘리고 깨어나서는 오늘도 재수 옴 붙었어. 둬훼, 하루를 살기도 전 에 내

[24] 박완서, 「부처님 근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 문학동네, 2013, 108 면.

던지고, 그러다가도 문득 6·25 때, 사실은 말야. 우리 아버지는 말야 하고 이야기가 하고 싶어졌다.[25]

이 부분에서는 피해의 플래시백이 밤의 악몽이 되는 과정을 제시한다. 이것은 여주인공의 정신 상태를 매일 조금씩 더 압도하는 우울증과 불안증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복합적인 정신 상태로서 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하다. 이는 그저 머리 속에 있는 세계인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발견하고 제시할 수 있게끔 보여준다. 앞서 서술했듯 여주인공의 현재 심리적인 상태는 소중한 오빠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6.25 전쟁 동안 일어난 것이었지만 이 두 죽음은 두 별도적이고 트라우마적인 경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래 장면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두 남자 식구가 차례차례로 죽어갔다.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끔찍한 사상으로 이 십여 년 동안 여자들을 얽맸다.[26]

낭만적인 문학에서 시간은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지만, 여기서의 현실은 더 심각하다. 전쟁이 끝난 지 20 년 후에도 이와 같은 트라우마적인 경험은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인간 심리에 가하는 힘도 지우기 어렵다.

이 여주인공에게 영향을 끼친 첫 번째 경험은 좌익에 참여함으로 인해 일어난 오빠의 죽음이다. 오빠를 방문한 동료와의 이야기가 심각해지고 끝내 오빠는 죽고 말았다.

---

[25] 위의 글, 112 면.
[26] 위의 글, 105 면.

별안간 오빠가 "못해"하고 악을 썼다. 상대방이 "못해? 죽인대도?", "죽어도 싫다니까." 목숨은 어처구니없이 조급하게 흥정된 모양이다. 총잡이다 정말 총을 썼다. 한방도 아닌 여러 방을, 가슴과 목과 얼굴과 이마에. 그들은 갔다. 우리 식구는, 나는 얼마나 소름끼치게 참혹하고 추악한 죽음을 목도하고 처리해야 했던가?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이 산산이 망가진 상체의 살점과 뇌수와 응고된 선혈을 주워 모으며 우리 식구는 모질게도 악 한 마디 안 했다.[27]

이 인용문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단순한 상실로 인해 주인공이 외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오빠들의 죽음과 관련된 변질과 처참한 세부들이 사건의 충격을 더 가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죽음을 인정할 겨를 없이 청소와 사후 처리를 직접, 완전한 침묵으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그녀의 마음에 훨씬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킨다.

불행히도, 그녀의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다. 자기 아들이 사망한 후, 그녀의 아버지는 당시의 정치에 점점 더 관여하게 되어 유엔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의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그 후에 그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끔찍한다.

세상이 바뀌고 아버지는 원한을 산 사람들의 고발로 잡혀갔다. 1·4 후퇴를 며칠 안 남기고 썩은 냄새를 심하게 풍기는 송장이었다. 그래도 그 끔찍한 몰골로 목숨은 붙어 있어 우리를 피난도 못 가게 서울에 묶어 놓았다가 1·4 후퇴 후의 텅 빈 서울에서 돌아가셨다. 그것은 오빠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차마 눈 뜨곤 볼 수 없는 죽음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아버지의 죽음도 감쪽같이 처리했다. 아아, 우리는 이미 그런 일에 능숙해져 있었다.[28]

---

[27] 위의 글, 106 면.
[28] 위의 글, 107 면.

심각한 상처로 그의 상태는 서서히 악화되어 끝내 사망하게 되며 주인공의 말에 따르면 그 죽음은 자기 오빠의 죽음보다 훨씬 끔찍한 것이었다. 이것은 주인공이 경험한 두 번째 끔찍한 사건이었으며, 트라우마가 그녀에게 주는 영향은 더 강해졌고 죽음과 그녀의 사이도 변화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끔찍한 죽음과 관련된 것에서 벗어나 이러한 사건의 놀라운 힘은 두 사건에 대한 그녀와 어머니의 즉각적인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훨씬 더 이해될 수 있다. 긴장된 전쟁 시간 동안 반역자와 그 가족은 심하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두 여성은 시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했고 장례식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진행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살고 있었다. 한국 전쟁의 끔찍한 본성에 의해 행해지는 이 행동은 그녀의 정신을 막아 버렸고, 인간의 삶에서 건전하게 발생하는 마음의 자연적인 슬픔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주인공의 삶에서 잘못하게 일어난 다른 상황을 제시하기우한과 그녀의 감정적인 상태의 악화는 정상적인 슬픔의 과정과 "죽은 자의 소비"의 비교 장면으로 강조된다.

죽음 이후의 일어난 장례식, 고통, 분노 및 미움은 어둡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비로소 산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이것은 산자들이 치유하고 나아가는 길에서 죽은 자를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보여준다. 그녀는 이 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함께 "은밀히, 음험하게" "사자를 삼킨"다.[29] 또한 이것은 그녀의 PTSD와 감정적 투쟁의 원인인 된다. 이 감정을 내버려두고 제때에 다루지 않으면 천천히 확산되는 암처럼 내부에서 그녀를 소모하여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든다.

다음 부분에서는 『엄마의 말뚝』 세 부분으로 된 이야기의 주인공을 분석할 것이다. 이 작품은 그녀의 유년기부터, 한국 전쟁의 경험, 결혼 및 21 세기 말에 그녀의 삶을 묘사한다. 자전적인 것으로 인정된 소설이지만, 이 장에

[29] 위의 글, 108 면.

서는 등장 인물을 통해 전쟁의 심리적 효과가 표현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저자 자신의 경험과의 관계는 다음 장에서 분석할 것이다. 작품의 첫 번째 부분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이므로 한국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분석을 생략하고, 다음 두 부분은 한국 전쟁을 그녀의 삶의 주요 사건 중 하나로 묘사하며 전쟁이 끝나고 30 년 후 그녀의 삶도 볼 수 있다. 이야기의 마지막 두 부분은 전쟁의 심리적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완벽한 배경이므로 분석의 주요 초점이 된다. 또한 다른 소설에서는 주로 주인공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 이야기는 주인공 외 인물의 정신 상태도 탐구한다.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주인공의 오빠이다. 정치적, 사회적 불균형의 시기에 좌파 운동과 우파 운동에 관여한 그는 군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감 중에 그가 직면했을 상황은 분명히 묘사되지 않지만 그의 석방 후의 정신 상태와 행동은 명백한 학대에 대한 암시를 준다.

체포 동안 겪었던 시련과 고문으로 인해 그의 신체 상태도 끔찍했지만, 그의 정신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동요, 작은 소리에 대한 관심, 아내 및 자녀와 감정적으로 연결할 수 없는 능력은 PTSD 를 분명히 지시한다. PTSD 는 전투에 직면한 군인들에게 가장 자주 나타나는 정신적 불균형 상태 중 하나이다. 비록 실제 군인은 아니고 죄수이지만, 그가 견뎌야했던 육체적, 심리적 고문은 그를 전쟁으로 인한 PTSD 의 전형적인 사례로 만들었다. 그의 심리적 불안정성은 이야기 전체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데, 이는 가족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 생활에서도 심각한 사건으로 여겨졌다. 병사들이 지나가는 것은 그의 촉발지점 중 하나라고 묘사된다. 이미 충격을 받은 자아를 대변 상태로 바꾸었고, 무응답 상태는 체포가 여전히 그에게 미치는 영향의 분명한 예이다. 더욱이 그의 언어 부족은 충격적인 사건의 충격도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주었고, 이를 PTSD 의 고통으로 분명히 정의되는 증상을 추가했다.

불행히도, 오빠는 가족에서 외상을 입은 유일한 사람이 아니다. 외상에 대한 분석은 어머니를 무자비한 전쟁의 또 다른 희생자로 묘사한다. 그녀의 외

상은 전쟁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그녀의 심리적 불균형의 원인은 앞서 살펴본 아들이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고통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표면 아래에 더 깊은 통증이 있음을 나타낸다.

감정적인 폭발의 형태로 아들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 정서적인 폭발은 그녀가 불운하게 막지 못한 고통의 분명한 예이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생존자의 죄책감을 지시한다. 자신의 아들보다 오래 산 것에 대한 수치심은 그녀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다쳤는지를 보여준다. 수술 후 마취제는 아들의 사망과 관련하여 억압된 기억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너무 오랫동안 억눌린 것이 약물을 통해 방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빨래에 대한 단순한 꿈은 천천히 변화하여 아들이 군인들에게 공격받은 기억을 재현한다. 어머니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며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고갈시키는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 단순한 꿈은 역화가 되어 공포에 떨며 그 효과는 주로 고통스런 상태와 오빠의 죽음을 상기시켜 주면서 주인공으로 퍼져 나간다. 이것은 주인공의 말로 묘사된 것처럼 아들의 죽음에 대한 실제 설명을 살펴보면 플래시백의 기능과 모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여파로 전투를 벌이고, 결과적으로 그녀의 정신에 대한 외상은 죽음에 대한 소망으로 끝난다. 그녀는 30 년 동안 괴로워했던 생존자의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아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묻히기를 원했다.

『엄마의 말뚝』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 살펴볼 다음 이야기는 단편소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이다. 20 년 후 주인공은 서울로 돌아와 새 남편과 새 삶에 적응해야 한다. 주인공은 커피숍에서 그녀의 오래된 지인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린 시절부터 한국 전쟁 동안의 삶뿐만 아니라 결혼한 여성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기억한다. 기억하는 장면은 그녀의 육체적 생계에 대한 세부 상황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마음 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내면적인 순간으로 가득 차 있다.

김포가 지척인 화곡동 특유의 비행기 소리가 유리창이란 유리창을 들들들 흔들면서 모가 자라도 도려낼듯이 낮게 지나가면 마치 온 집안 얇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당장 박살이 날 듯한 겁에 질렸다가 굉음이 무사히 멀어지면 일속에 맥이 쑥 빠지면서 예의 우두망찰에 빠졌다.[30]

이것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련 심리적 반응에 대한 유발 요소를 설명함으로써 PTSD 문제와 관련된 주요 인용문이다. 지나가는 비행기의 소리는 압도적인 감각 경험으로서 불안과 충격의 상태를 만들어 그녀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전적인 외상 사례로 요약된 주인공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았지만, 그러한 정서적 혼란의 시작 사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초의 외상 사건을 암시하는 첫 번째 사례는 그녀의 전쟁 동안의 삶에 대한 기억으로 발생한다. 어머니와 함께 가혹한 시간을 보냈을 때, 그녀는 최전선 뒤에서 발생하는 폭력, 특히 살기 위해 젊은이와 노인 여성 모두를 방탕한 삶에 이끌려 '양갈보'로 불리게 된다. 이러한 삶에 대한 그녀의 어머니의 시도 그리고 그 시도가 자기 나이와 아이들로 인해 실패한 데 대한 분노는 주인공의 정서적 상태에서 전환점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무서워서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아마 그 순간 내 내부의 부끄러움을 타는 여린 감수성이 영영 두터운 딱지를 붙이고 말았을 게다.[31]

주인공이 사용하는 "영영"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인생에서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녀가 설명해 듯이, 그 순간은 중요성은 내전에서 잡힌 고난과 공포의 삶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과 자신의 몸을 팔고자 하는

[30] 박완서,「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 앞의 책, 303 면.
[31] 위의 글, 317 면.

어머니의 시도로 받은 배신이다. 특히 그녀의 감정적 봉쇄를 유발하는 요소가 되고, 자기 가족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책임감을 부인한다.

「그 가을의 사흘동안」의 분석은 이 전체 이야기가 트라우마를 표현하고 주인공이 외상 경험의 피해자인 추정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것은 어떻게 소설되는지를 발견하고 자한다. 전체 내용은 여의사가 개업하고 이 마지막 사흘동안을 중심으로, 과거의 기억과 함께 그의 강간 피해자로서 삼십 년 동안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만 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제시한다. 헤르만(Herman)의 심리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를 고려하면 주인공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32]로 강간의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준다. 아래의 내용에서 여의사의 정신적 상태와 관련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장 큰 세 개의 증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증상은 인간 정신의 자기 보호를 위해 경계하는 과다각성(hyperarousal)이다. 이는 피해자가 쉽게 깜짝 놀라게 하여 제일 작은 것은 촉매될 수 있는 투쟁 도주 반응 을 강하게 일으키다. 박완서의 작품에 이것이 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전제된 증상이다. 그 이야기는 강간의 즉각적인 여파를 전달하지는 않고 여의사가 자기 가진 아기를 낙태하고 회복하는 후에 있기 때문에 과다각성을 덜 심각한 원인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1953 년에 27 세 여성인 주인공의 인생과 전신적 상황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을 뿐 만

[32] 심리학적인 차원에서는「트라우마와 회복」 (Trauma and recovery)에 라는 책에서 Judith Herman(주딧 해르만)은 트라우마의 징훈가 세 가지의 증상으로 서술된다. 피해자가 모든 곳에서 위협이 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안전성의 결여는 더 많은 증상들을 영속시킨는 첫 증상은 과다각성(hyperarousal)이다. 그 다음은 침입(intrusion)으로,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여 반복강박으로 이런 충격적인 기억들을 다시 체험하는 상태와 관련된다.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외에도 플래시백이나 악몽도 지속적인 트라우마의 체험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저항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희생자의 완전한 항복을 가리키는 생리적협착(constriction)이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속에서 일어난 소외, 무관심 삶의 질 저하를 설명한다. 정신 분열증, 감정적 고립, 심오한 수동성은 개인의 미래를 위한 어떠한 이니셔티브도 말살시키고, 희생자들이 대처할 수 없는 것을 보여 준다. 외상성 신경증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해당하는 공식 및 정황 요소를 통해 문학적 차원에서 만났다.

아니라 과다각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장면 알아볼 기회가 준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상황은 여의사와 영감의 대화이다.

> 저 영감은 왜 웃는 걸까? 나는 꼼짝도 못하고 고작 그렇게 생각했다.
> '선생님은 암말 말고 그저 내 하라는 대로만 하시오, 잉?
> 우리 동네 병원하나 생길 판인데 내 절대로 선생님을 해롭겐느 안 할 거시니까 잉?'
> 영감은 니코틴 냄새 나는 입을 내 귓적에 들이대고 이렇게 속삭였다.[33]

화자인 여의사가 강간당했던 경험이 플래시백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중심으로 이 장면을 파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건물의 구입에 대한 순수한 대화일 수 있지만, 여의사의 눈으로 볼 때는 공포, 혐오감이 느껴지고 남자의 행동은 성욕을 전달한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남자를 볼 때 첫 반응은 공포 인해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 후에는 남자의 행동도 협박할 수 있는 느낌을 가지는 것처럼 인식된다. 이것이 인물의 상상인지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보다는 여의사가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다른 비슷한 상황은 황씨의 딸이 아이를 낳은 후에 화자와 황씨의 대화이다. 그의 딸의 강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의사는 그 사람의 눈에서 "얼핏 정욕의 냄새를 맡은 것처럼 느"[34]낀다. 이 장면으로 여의사는 남자란 다 위험한 존재라는 믿음을 한 번 더 강화시킨다. 그는 유체적인 반응은 많이 없지만 정신적으로 이 신념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으므로 자기 보호 경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볼 수 있으며, 남자들과의 지나친 별거도 그의 정신적인 가성도를 보여준다.

---

[33] 박완서,「그 가을의 사흘 동안」,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 앞의 책, 226 면.
[34] 위의 글, 232 면.

주인공이 두 번째 보여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오래 시간이 흘렀어도 그가 경험했던 트라우마적 사건을 현재에 다시 체험하는 것과 관련된 침입(intrusion)이다.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고 외상적 사건에 시간이 멈추는 것처럼 느끼는 인생의 새로운 관점에 대한 것이다. 이 트라우마는 부정형식으로 '기억속에 인코딩되어' 깨어있을 때 플래시백 형상으로 나타나거나 잠을 잘 때 악몽처럼 일어나거나 또는 의식을 잃는 것이다.[35]

이는 내용의 대부분에 확산되어 과거이나 현재이나 주인공의 자기 트라우마를 다시 체험하는 것으로 서술된다. 트라우마 기억이 보통 기억과 다른 것처럼 트라우마에 대한 꿈은 보통 꿈과 다르다. 대부분 상상력의 영향 없이 외상적 사건에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이미지를 포함한다. 이는 55 세 여성인 화자의 꿈을 통해 볼 수 있다.

> 끔찍한 꿈이었다. 내 손에 박힌 못이 암종이 되어 온몸의 살갗으로 무섭게 퍼지는 꿈에서 깨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아스라히 악머구리 끓듯 하는 한여름 밤의 개구리 소리를 들은 것처럼 느꼈다. 내가 나를 다방면으로 공격해오는 이질적인 노린내와 무성한 가슴의 털과 동아줄처럼 길고도 힘센 사지와 바윗덩이처럼 육중한 체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듣던 것도 개구리 소리였다.[36]

대수롭게 보여준 암시는 이런 기억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 기억들은 종종 원래 사건의 생생하고 감정적인 힘과 함께 돌아온다. 이 소설에서의 첫 번째 사례는 왜곡된 몸의 사진이 그녀의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그녀를 나이 든 과거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 기억은 아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형적인 이미지 대신에 과부하가 걸리는 과부하에 의해 설명된다.

---

[35] 위의 글, 242 면.
[36] 위의 글, 243 면.

그러나 그것을 찢어버리는 걸로, 질식할 듯한 노린내, 율동할 때마다 내 얼굴을 빗자루처럼 쓸던 가슴팍의 무성한 털, 동아줄처럼 서리서리 길고 질기게 내 몸을 감던 유연하고도 힘센 사지, 내 몸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증..이런 것들이 내 몸에 일시에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걸 막을 순 없었다.[37]

다음에 볼 수 있는 마지막 증상은 자기 보호 체제의 폐쇄를 다루는 생리적 협착(constriction)이다. 이는 트라우마의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 자기의 의식 상태를 변형시켜 항복 상태와 비슷한 상태로 만드는 경향이다. 이 변화들은 무관심, 정서의 무심함과 깊은 수동성 등과 결합된다. 이 심리적인 상태는 주인공의 상황에서 그의 정신을 잃는 장면과 연결된다. 각성 상태에서 일을 할 때 여의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더 강해지고 마지막 낙태의 장면으로 클라이맥스를 이르다. 아래의 인용문으로 생리적협착을 제시한 여의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미스 최, 미스 최, 왜 이런 짓을 했어? 응 누가 이런 짓을 하라고 시키더냐고?"

(...)

"선생님, 참 요새 이상하시더라.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산모 뒷처리는 다 저한테 맡기시고, 선생님은 아기를 맡으셨잖아요?"

내가? 정말 내가 그랬을까?[38]

여기에서는 여의사의 혼란을 볼 수 있다. 삼십 년 동안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며 낙태 행위의 트라우마적인 차원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의사가 정신적으로 이런 끔찍한 행동을

[37] 위의 글, 225 면.
[38] 위의 글, 262 면.

참을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지배하고 순수한 아이의 삶을 끝내는 순간을 이런 방식으로 넘어간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설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이다. 이 작품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조부모와 함께 살고, 아버지의 죽음, 서울로 이사하고 한국 전쟁 초기에 난민이 된 주인공의 삶을 묘사한다. 이 이야기는 해방 이후의 삶 뿐만 아니라 일본 점령 전후의 한국 사회에서의 삶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으로 뒷받침된다. 한국 전쟁은 이 책의 후반부에 그려지며 전쟁의 심리적 영향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쟁의 시작과 상대 군대의 침공에 따라 주인공의 오빠는 강제로 사람들의 군대에 징집되며, 긴 시간후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말 나쁜 형태로 돌아오기만 한다. 돌아온 그의 모습이 가장 큰 관심을 얻었으며, 그의 동생은 그를 거지로 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 내가 떠나기 전에 오빠가 돌아왔다. 아아, 오빠가 돌아온 것이 다. 거지 중에도 상거지 꼴이었지만 인민군이 안돼서 돌아왔으니 금의환향 부럽지 않았다. 그러나 곧 오빠의 귀향은 우리에게 설상 가상이 되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붙들고 울고불고 웃은 것도 잠시, 우리는 너무도 달라진 오빠의 태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으면 안 되었다.[39]

그러나 면밀하게 살펴보면 시간이 갈수록 그의 정신 건강의 심각함이 전면에 드러난다. 그 즉각적인 요소는 그의 감정 부족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모든 감정이 비워져 가족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상태다. 이 인용문은 그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 더 깊이 설명 할 것이다.

[39]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세계사, 2012, 262 면.

어떻게 그 몸으로 전선을 돌파하고 먼 길 걸어 집까지 돌아올 수 있었을까 믿기지 않을 만큼 몸이 못 쓰게 된 건 약과였다. 집에 돌아왔는데도 조금도 기쁜 기색이 없었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 태어난 아들을 보고도 안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그렇다고 무표정한 것하고도 달랐다. 시선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하게 흔들리고, 작은 소리에도 유난스럽게 놀랐다.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은 무슨 소리를 해도 바꾸지 않았다.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도 그를 안정시키진 못했다. 밤에는 바람소리, 쥐 부스럭대는 소리에도 놀라 한잠을 못 잤다. 어디를 어떻게 무슨 꼴을 당하며 왔기에 그 꼴이 되었을까. 죽기를 무릅쓰고 사선을 넘은 무용담도 있으련만 말하지 않았다. 그런후 흔적도 안 보였다. 오빠는 심한 피해망상을 앓고 있었다. [40]

감정 부족, 불안, 주변 환경에 대한 민감성 및 수면 부족은 큰 충격 상태를 가리키는 증상으로 그의 정신을 압도한다. 그는 심리적으로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친숙한 환경으로 돌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을 조정하고 되돌아 갈 수 없었다. 편집증은 외상이 있는 개인과 PTSD 의 환자로서 오빠의 이미지를 더욱 완성시키는 추가 증상이 된다. 이러한 모든 증상은 압도적인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수집된다. 이번에는 그가 불합리하게 변하고 비행 응답이 시작되는 간단한 뉴스로 한 번 더 동요했다. 그의 상처로 인해 무능력해진 상대로 그는 가족을 탈출하라고 명령하며 모퉁이에 숨기는 것은 적어도 그의 일시적인 도피 시도가 된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라는 소설은 『그 많던 싱아를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계속하며, 외상을 입은 오빠가 겪고있는 심리적 혼란을 훨씬 더 많이 묘사한다. 주인공은 여전히 전쟁 중에 있으며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부과하는 어려움을 처리해야 한다. 이전 이야기의 연속으로, 주인공의 오빠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의 상태는 여전히 PTSD 의 이해에

[40] 위의 책, 262 면.

매우 중요한다. 소설 전반에 걸쳐 그의 정신적 불균형과 관련된 더 많은 증상이 서서히 드러난다. 처음에 그의 여동생은 다음을 관찰한다.

> 그렇게 잘나 보이던 오빠가 너무 보잘것 없이 누워 있었다. 오빠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럼 돌아온 게 아니지 않나. (...) 오빠도 살아 돌아온 게 아니라 그때 무참히 죽은 것이다. 지금 아랫목에 누워 있는 건 오빠의 허깨비일 뿐 진정한 그는 아니다.[41]

이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의 오빠가 돌아온 주가 무엇이든, 그는 실생활에서 살 수 없으며 사회에서 그의 가족의 자리를 되찾을 수 없는 고인과 비교되었다. 그의 마음 상태는 정확히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단락에서 볼 수 있다.

> 오빠의 조바심은 점점 더 심해졌다. 밥도 못 짓게 하고 세 여자를 밖으로 내몰지 못해했다.
>
> "기 기 기……깃대빼기에 무슨 기가 꽂혔는지도 안 보여? 누 누 ……눈깔이 멀었냐?"
>
> 오빠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속에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허한 소리였지만 나에겐 아우성소리처럼 들렸다. 오빠가 무엇을 그렇게 애타게 궁금해하는지 드디어 명백해졌다. 오빠는 이 수도 서울에 우리 식구말고 다른 사람이 있나 없나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치하에 있나가 알고 싶은 거였다.[42]

그의 충격 상태는 자기의 가족, 특히 그의 아내 및 어린 자녀들과 제대로 상호 작용할 수 없게 했으며, 감정의 압도는 말에 영향을 미쳐 말더듬증을 얻게 된다. 걱정과 절망의 끊임없는 상태는 그의 사람에게 달라 붙었다.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든, 현재 근처에 무슨 미군이 통치하고 있고 어

---

[41]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세계사, 2012, 23 면.
[42] 위의 책, 12 면.

떤 군인을 방문했는지라는 것으로 불안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의 방아쇠가 될 것이다.

그의 신체 상태에는 치유가 있는데 정신 상태는 재발이 일어난 것 같아서 전쟁 트라우마의 중력과 그것을 극복하는 어려움을 더욱 지적한다. 육체가 치료되는 동안 정신적 긴장은 여전히 존재하며 개인에게 부과된다. 한국군이 서울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는 희망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그러나 동생의 눈으로 보기에 "오빠의 태도는 종잡을 수가 없었다."[43] 그녀는 다음 인용문에서 자신의 신체 상태와 정신 상태 사이의 이분법을 추가로 주장한다. "오빠가 버젓이 그 사이를 비집고 올라앉음으로써 우리 식구의 피난 행렬은 아무래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의 짓 같지가 않았다."[44] 이 인용문으로 오빠는 괜찮은 듯 보이지만 그의 "조용한"[45] 상태와 그의 인척을 방문에 대한 그의 주장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정신적 상처를 강조한다.

> 그런 오빠가 밉고 버겁다가도 잠든 오빠를 보면 불쌍했다. 관통상 때의 출혈로 잠든 오빠는 백지장 같았다. 더군다나 오빠는 진통제 없이 잠들지 못했다. 그의 잠든 모습은 살 아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았다. 그가 사선을 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의용군 갔다 도망친 이는 별별 모험담과 무용담을 다 가족들한테 말한다는데 오빠는 한번도 그러지 않았다. 말하고 싶지 않은 걸까. 잊고 싶은 걸까. 오빠가 가장 잊고 싶은 건 고생 이상 의 그 무엇이었을 것이다. 치욕이나 배신 따위 오빠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짐작 못 하는 바는 아니나 나에겐 너무 추상적이었다.[46]

---

[43] 위의 책, 17 면.
[44] 위의 책, 145 면.
[45] 위의 책, 143 면.
[46] 위의 책, 25 면.

가족의 삶이 돌아 다니는 오빠의 PTSD 외에도 주인공의 마음도 조금 엿볼 수 있다. 외부에서 강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작가는 성찰 과정을 거치며 내부에서는 다른 전쟁 희생자처럼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묘사한다.

> 나 역시 무서워하고 있다는걸 우물 속의 내 모습은 부정할 도리 없이 빤히 비춰 주고 있었다. 말을 안 더듬는다고 해서 안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47]
>
>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은 점점 추비하고 남루해지는 걸까.[48]

사회적 불균형 상태와 관련된 두려움과 불안은 그녀의 심리적 발달의 불가피한 부분이며, 오빠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것으로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녀의 오빠의 사망 한 후, 고통은 심화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은 이미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여성에 더욱 충격으로 만든다. 그녀의 생존자의 죄책감은 자신의 꿈에 표현 된 살아 있기를 원했다는 것으로 제시된다.

“오빠의 무덤에 균열이 생기면서 미처 죽기도 전에 묻힌 그가 살아나오는 꿈을, 그 날 오래간만에 또 꾸었다.”[49] 볼 수 있듯이, 이 꿈은 단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반복적인 경험이다. 이 것은 더 깊은 심리적 문제의 표현으로 초점을 맞추고, 오빠의 죽음은 그녀에게 트라우마적인 경험으로 이해하고 그는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녀의 욕망을 제시한다. 이것은 아직 극복되지 않은 외상성 사건의 증상으로서 무의식이 그녀의 내적 욕구 중 하나를 현실로 가져 오는 명백한 예이다.

---

[47] 위의 책, 14 면.
[48] 위의 책, 243 면.
[49] 위의 책, 235 면.

2.2. 우울증, 불안증과 강박장애(OCD) 가진 인물의 이야기

박완서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전쟁 외상과 관련된 주요 심리적 증상 중 하나는 우울증과 불안이다. 그녀의 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 주인공은 우울한 정신 상태나 불안한 상태, 또는 둘 다를 가리키는 특징과 특성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우울증이 우울증에 의한 불안과 불안을 동반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처음으로 보게 될 인물은 『나목』의 이경이다. 소설이 시작될 때부터 그녀는 자신이 통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또는 그녀의 주변 사람들과 그녀의 친척들과의 상호 작용으로 소설 전체에 퍼져있는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불가침을 보여준다. 이경의 감정적 상태에 대한 또 다른 대표적인 요인은, 그녀의 불가침에 밖에, 친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야기의 시작부터 그 문제를 지적한다. "항상 집 근처까지라도 동행할 만한 친구를 아쉬워했지만 친구는 생길 듯 하면서도 좀처럼 생기지 않았다"[50]는 것이다. 이것은 소설 전체에서 여러 번 관찰되는데, 상징적 관계 중 하나는 다이아나 김과의 상호 작용이다. 이들의 소위 우정은 상호 이익의 목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애정이나 상호 무조건적 지원과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비즈니스 관계에 가깝다. 그녀와 옥희도, 조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 개념을 넘어서서 남자와의 친교가 추가된 예이다. 태수는 외로운 시간 동안 정서적 목발로 사용된다.

이 몇 가지 사건은 주인공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기반을 설정한다. 그녀는 시간의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거나 전통적인 사회 활동에 적합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녀의 성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이 몇 줄은 또한 분명히 우울한 개인으로 진단의 기초를 천천히 설정했으며, 더 분석될 것이다.

---

[50] 박완서, 『나목』, 세계사, 1995, 15 면.

그녀가 겪는 주된 문제점은 그녀의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에 대한 흥분과 불쾌감이 끊임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 혼란의 시기에는 반드시 보이지는 않지만,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가 삶을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살기 위해 그들 자신의 기능적 시스템에 있는 동안 발견된다. 이 경은 그녀와 그들의 행동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불만, 친척에 대한 반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판 외에 그녀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그녀를 기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연인을 찾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며, 이는 행복에 대한 강박적인 탐구로 해석될 수 있다.

> 그러나 나는 미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나는 내 속에 감추어진 삶의 기쁨에의 끈질긴 집념을 알고 있다. 그것은 아직도 지치지 알고 깊이 도사려 있으면서 내가 죽지 못해 사는 시늉을 해야 하는 형벌 속에 있다는 것에 아랑곳없이 가는 나와는 별개의 개체처럼 생동을 시도하는 것이었다.[51]

그녀가 감정 상태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다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

> 눈 때문에 어둠도 부옇고 어둠 때문에 눈도 부옇고, 고개를 젖히니 하늘도 자욱하니 별빛을 가로막고 암회색으로 막혀 있었다. 나는 명도만 다른 여러 종류의 회색빛에 갇혀서 허우적대듯 걸었다. 아무리 허우적대도 벗어날 길 없는 첩첩한 회색, 그 속에서도 나는 환상과도 같은 황홀한 빛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완구점 앞에서의 옥희도 씨와의 만남이 그것이었다.
>
> 그것은 회상이라기에는 너무도 휘황해서 마치 환상 같으면서도 환상이라기에는 너무도 생동하는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곧 태수와 그의 가족들과 있었던 일은 잊었다. 그것은 그냥 부연 회색의 일부분일 뿐이었다.[52]

---

[51] 위의 책, 85 면.
[52] 위의 책, 159 면.

“어차피 저에겐 긴 미래가 없을 테니까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때문인가?"

"선생님 때문이 아녜요. 전쟁 때문이에요. 이 미친 전쟁이 머지 않아 우리들은 차례차례 죽일 테니까요. 아무도 그 미친 손으로부터 놓여날 수는 없을 걸요.” [53]

그녀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의 몸에 대한 성욕의 추구는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으로 정신을 회복하려는 행동이 된다.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던 옥희도와의 관계는 절망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조와의 관계는 잠자리의 욕구로 나타나며, 태수는 그 셋 중에 제일 무관심한 남성이지만 백업 계획으로 좋은 선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옥희도는 그의 아내와 계속 함께 살며, 다른 남자와의 관계나 태수와의 결혼은 그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었고 그녀의 절망적인 탐색은 결국 실패가 된다. 오히려 그것은 다음 인용문에 나타난 훨씬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녀의 정신 상태의 더 많은 증상을 유발한다.

나는 내가 도저히 견제할 수 없는 여러 갈래의 많은 '나'의 제멋 대로의 아우성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아우성들을 간투린다거나 억누를 생각 같은 건 해 본 적도 없이 그 아우성들에게 나를 조금씩 나누며 빙빙 어지럽게 맴을 돌고 있을 뿐인 것이다.[54]

위에서 언급했듯이 불안은 항상 우울증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이경 또한 이 규칙의 예외가 아니다. 그녀의 불안을 묘사하는 주요 장면 중 하나는 집에 도착한 그녀가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지는 것을 보는 것이다. 건물의 어둡

[53] 위의 책, 164 면.
[54] 위의 책, 145 면.

고 가난한 상태는 다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의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 나는 종종걸음으로 어두운 모퉁이를 재빨리 벗어나 한한 상가로 나섰다. (...)
> 그러나 변화가인 충무로조차도 어두운 모퉁이, 불빛 없이 우뚝 전 거대한 괴물 같은 건물들 천지였다. 주인 없는 집이 아니면 중앙우체국처럼 다 타버리고 윗구멍이 뻥 뚫린 채 벽만 서 있는 집 들, 이런 어두운 모퉁이에서 나는 문득문득 무섬을 탔다. 어둡다는 생각에 아직도 전쟁중이라는 생각이 겹쳐오면 양키들 말마따나 갓댐 양구, 갓댐 철원, 문산 그런 곳이 지금 내가 있는 곳 에서 너무고 가까운 것 같아 나는 진저리를 치며 무서워했다. (...)
> 나의 빨랐다 느렸다 하는 걸음은 을지로를 지나 화신 앞에서부터는 줄창 빛박질이 되고 말았다. 외둥이라든가 구멍가게라든가 그런 아무런 표적도 있는 죽은 듯이 어두운 비슷한 한식 기와집 사이로 미로처럼 꼬물탕한 골목길을 무섭다는 생각에 가위눌리면서 달음박질쳤다.
> 드디어 집이 가까워지면서 어둠만이 보이던 나의 눈에 별이 박힌 부연 하늘이 들어오고, 그 부연 하늘을 이고 서서 한쪽이 보기 싫게 일그러져나간 채인 우리 집의 지붕이 이상하러만큼 신명하게 보인다.
> 그러면 내 무서움증은 드디어 절정에 달해 금세 심장이 멎을 것 같아진다.
> "엄마, 엄마!"
> 나는 빗장이 부러져라 하고 어머니가 문을 일 때까지 계속해서 흔들어댄다.
> "나간다. 나가. 엔 수선일까? 쯧쯧"
> 딸의 다급함에 도무지 아랑곳없는 느리고 가라앉은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고 삐이기 하고 대문이 둔중하게 열렸다.
> "엄마두 참, 불좀 켜놓으시래두. 온통… 안채구 바깥채구 온통 ..."[55]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의 행동은 어둠에 대한 반응으로 상당히 비이성적이고 혼란스러워진다. 어둠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에

[55] 위의 책, 16 면.

대한 그녀의 두려움은 실제로는 잠재 의식적인 전쟁에 대한 공포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심지어 인물 자신에 의해 확인된다.

> 초상화부도 만만치 않게 대목을 보느라 온종일 바쁜 가운데서도 짬짬이 나는 엉뚱항 실수를 할 만큼 설레고 또 호젓이 집에 돌아가는 길목에서는 문득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이미 그런 설렘이 성탄을 앞둔 여러 사람들의 흥분과 비슷한 것일 수 없었고, 또 그런 불안이 전쟁이나 어둠에 기인한 것만 일 수 없게 되었다.[56]

이 고난에 대한 방아쇠가 항상 이유가 있지는 않아서 어둠이 그녀의 주요 방아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는 어떤 명백한 이유없이 두려움이 그녀를 압도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녀의 외상 경험이 일반화된 불안 상태로 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는 '네' 하고 서슴지 않고 긍정하려다 말고 퍼뜩 회상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내부에서 무엇인가 자꾸 균형을 잃으려 하고 있었다. 난 그것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듯이 고개를 흔들고 아까부터 내 접시에서 식어가는 전골을 한 젓가락 집어 황급히 입에 쓸어넣었다.[57]

이 고통의 심각성은 일부 장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설 전체에서 강조된다. 그녀의 빛에 대한 집착과 어둠에 대한 공포는 반복적인 패턴으로 존재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화한다. 빛은 어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두 오빠들에 대한 사랑의 추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안식처이다.

---

[56] 위의 책, 52 면.
[57] 위의 책, 62 면.

이경과 유사한 마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인물은 단편소설 「부처님 근처」의 주인공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겪은 정신적 낙상은 PTSD 에서 그치지 않고 우울증과 강박 관념에 대한 표현으로 이어진다. 주인공 자신의 생각과 전반적인 분위기를 통해 그녀의 정신 상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그녀의 감정적 마비 상태는 제사 중 아버지과 오빠의 사진을 보고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58]라고 말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또한 엄마와의 인색과 과거를 생각하면 더 명확한 설명이 제공된다. 다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

> 그래도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는 게 매가리가 없고 시들시들하고 구질구질하고 답답하고 넌더리가 났다. 사는 즐거움, 나는 흥미를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마치 망가진 용수철처럼 매가리가 없이 풀려 있었다. 싱싱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무서움증조차도 처녓적 같은 싱싱함을 이미 상실하고 있었다.[59]

위에서 인용한 단락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의 감정 상태는 불균형 중 하나이며, 설명된 모든 증상은 분명히 우울 상태를 나타낸다. 기쁨의 부족뿐만 아니라 두려움 또는 다른 것에 대한 무관심이 무감각한 마음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다음 단락에 설명된 바와 같이, 그녀는 많은 아이들을 낳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 나는 그런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리고 애를 낳고 또 낳았다. 애에 대한 내 욕심은 채워질 줄 몰랐다. 알 게 뭐람. 언제 또 어떤 시대의 횡포가, 광기가, 검은 총구가 되어 내 아이의 가슴을 향해 겨누어질지 알 게 뭐람. 뭘 믿고 아이를 둘만 낳을까. 셋도 적지. 넷도 적고말고, 다섯여섯…… 나는 몸서리를 치면서

---

[58] 박완서, 「부처님 근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 앞의 책, 12 면.
[59] 위의 글, 109 면.

자꾸 아이를 낳았다. 남편이 참다 못해 불임수술을 할 때까지 내 출산은 계속 됐다.[60]

아이를 계속 낳는 것에 대한 집착은 우울증과 얽힌 또 다른 정신적 불균형의 지표가 된다. 이 맥락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행동은 죽음을 앞지르려는 시도로서 불행히도 죽음에 걸리는 증상이며 강박 관념을 나타낸다. 본문에 서술된 것처럼, 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필요는 생각이 없고 막을 수 없는 열광이다. 그녀의 남편이 불임수술을 받은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은 그녀의 강박 장애의 중증도의 또 다른 예이다.

이 장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관찰을 계속할 작품은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이다. PTSD 는 이미 이전에 암시되었지만 우울증과 불안은 이 짧은 소설의 주인공의 정신 상태와 관련된 중심 증상이 되었다.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자신이 "지쳐졌다"고 선언한 후 그녀는 자신의 묘사를 계속 유지한다. 그녀의 정신은 주로 가장 심각한 상태의 장애"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가장 심한 뒤죽박죽의 상태에 있는 건 나 자신이었다. (...) 그날의 할 일 조차 잊고 촌닭처럼 서투르게 허둥지둥 하다가 우두망찰을 했다. 꼭 뭣에 홀린 듯 신나는 분주 끝에 오는 절망적인 우두망찰 – 비단 길을 가다가뿐만 아니라 나는 자주 이런 느낌을 경험했다. 서울 살림의 시작만 해도 그렇다.[61]

그녀의 감정 상태에 대한 이 작은 발췌 문장은 그녀 자신의 장애를 설명한다. 그녀의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 당황, 공허 및 혼란은 아직 완전히 인정되지 않은 지속적인 우울증과 불안의 상태를 제시한다. 우울증의 증상, 주로 피로감과 감정적 감각 마비는 다음 단락에서 더 설명된다.

---

[60] 위의 글, 109 면.
[61] 박완서,「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 앞의 책, 302 면.

나는 늘 피곤했지만 육체적인 노동끝에 오는 쾌적한 피로가 아니라 불쾌한 조음에 맞춰 서투르게 몸을 흔들어 댄 것 같은 허망한 피로였고, 몸의 피로라기보다는 마음의 피로였다.[62]

우울과 관련된 그녀의 불행한 상태는 그녀의 내성적인 과정에 스며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일상 생활, 주로 오랜 친구, 새 집, 그리고 세 번의 결혼 생활에 대한 그녀의 반응에 반영된다. 게다가 그녀가 미망인이 아니라 세 번 결혼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연스런 성향”인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 주인공은 결혼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각 결혼은 행복에 대한 시도였다고 평가했지만, 그녀의 감정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첫 번째 두 결혼은 실패로 끝났으며 세 번째 결혼도 좋은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6.25 전쟁의 주제를 다룬 대상 소설에서 많은 인물들이 트라우마를 보여준다. 트라우마는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이 인물들은 트라우마의 가장 흔한 증상 중 일부를 통해 쉽게 식별되는 정신 상태로 묘사된다. 「나목」의 이경은 전쟁 중 발생한 폭격으로 두 오빠들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한 다음에 '생존자의 죄책감'을 느끼고 트라우마를 당한 인물이다. 그녀는 이 트라우마적인 사건으로 자기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PTSD 를 겪는다. 지속적으로 어둠 속에 있을 때마다 불안감을 경험하거나 플래시백의 반복이 그녀를 괴롭힌다. 더욱 이경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끊임없는 불행과 불안감, 깊은 감정적 관계, 우울증을 암시하는 요소에 대한 무능력 상태에 빠진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처님 근처」의 주인공은 PTSD 를 앓고 있으며, 길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플래시백과 불안감을 많이 겪는다. 오빠와 아버지의 죽음을 시작으로, 시체를 처리해야하는 끔찍한 과정을 겪은 그녀는 트라우마에 휩싸였고 몇 년 후에도 정상적인 인간

[62] 위의 글, 305 면.

으로 기능할 수 없었다. 그녀의 정신은 극복할 수 없는 끔찍한 기억과 우울증으로 가득 차 있다. 『엄마의 말뚝』에서도 트라우마의 증상을 보이는 두 인물을 확인했다. 첫 번째 인물은 전쟁 중 군인인 1 인칭 화자의 오빠이다. 석방 후, 그는 다른 병사들의 목격을 듣고 불안 상태에 빠지고 긴장증적이고 (catatonic) 말을 할 수 없는 PTSD 의 분명한 증상을 보인다. 그의 죽음 이후 트라우마를 보이는 두 번째 인물은 그의 어머니이다. 그녀의 생존자로서의 죄책감은 수년이 지난 후에도 부끄러움으로 나타나며 아들 대신 죽고 싶다는 아들에 대한 회상과 환각에 휩싸이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에서 주인공은 감정적인 성향과 비행기 소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영향으로 PTSD 가 확인될 수 있다. 그녀는 이런 순간 불안에 시달리고 일상 생활에서 무감각하고 우울증으로 인해 정서적 관계를 갖지 못한다. 「그 가을의 사흘동안」에서 여의사의 행동에서는 심각한 PTSD 의 사례와 그 세 가지 주요 상태인 인과 각성, 침입 및 수축을 볼 수 있다. 50 년 동안 그녀는 악몽과 트라우마를 불러 일으키는 과거에 대한 플래시백, 남성에 대한 불안, 반복적으로 깜빡거림에 사로 잡혀 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 PTSD 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전쟁에서 돌아온 주인공의 오빠를 볼 수 있다. 그는 가족에 대한 모든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끊임없이 과민한 상태를 보인다. 주인공 역시 전쟁에 맞서고 동생의 죽음을 맞이한 후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 그녀는 생존자의 죄책감을 강조하는 수많은 회상과 꿈에 직면한다.

전체적으로 각 인물의 정신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전쟁 트라우마를 묘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더 나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박완서가 자신의 소설에서 트라우마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깊이와 그것이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3. 소설에 반영된 트라우마 치료 방식과 인물의 경험

박완서의 소설은 트라우마가 의미하는 바와 이것이 정신 속에서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 훌륭한 연구 자료이다. 이는 트라우마의 증상에 수반되는 것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데 멈추지 않는다. 작가는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증언하는 목격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인간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 트라우마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단계를 보여준다. 전쟁 트라우마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 박완서는 그처럼 복잡한 문제를 설명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트라우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3 장에서는 박완서가 치유의 개념을 다루는 방식을 관찰하고자 한다. 2 장에서 트라우마를 나타내는 방식을 확인했듯이 3 장에서는 그들이 정신 상태에 대처하는 방법과 행동의 결과를 관찰할 것이다.

3 장 1 절에서는 외상을 다룰 때 정신의 즉각적인 투쟁 도피 반응(flight or fight)를 분석한다. 투쟁 도피 반응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인간 정신의 자연스러운 방법이지만, 트라우마를 다룰 때 이 감각은 왜곡되고 심지어 부정적이다. 트라우마 경험에 직면했을 때 또는 그런 사건을 다시 경험해야 할 때 느끼는 두려움은 그것을 치유하는 대신에 외상을 지속시키는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조장한다. 박완서의 소설 속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인물들도 이런 행동을 보인다. 1 절에서는 이런 행동이 발생하는 방식과 그 여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3 장 2 절에서는 트라우마에 대한 건전한 답으로 수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트라우마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은 기꺼이 가장 큰 두려움에 맞서야 하기 때문에 많은 압력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치유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수용의 길과 그러한 변화에 직면하여 인물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관찰할 것이다.

3.1. 트라우마로부터의 탈출과 치료의 불가능성

외상 경험과 그 여파를 다룰 때,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개인의 즉각적인 반응은 도망치는 것이다. 이것은 외상을 다룰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반응이며 관련 연구에서 자주 분석된다. 따라서 외상을 거부하고 결석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또한 자신의 외상 경험에 직면했을 때 박완서의 인물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주요 경향 중 하나이다.

트라우마로부터의 '탈출'을 선택하는 첫 번째 인물은 『나목』의 이경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녀는 트라우마의 복잡한 심리적 특징을 나타내는 인물이며 정신적 불균형으로 인해 즉각적인 반응을 포함한 압도적인 감정을 보인다. 오빠들의 죽음 이후 그녀가 입은 상처는 너무 커서 쉽게 극복할 수 없다. 트라우마가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그 트라우마와 기억을 탈출하는 것이다. 이경의 삶과 자신의 감정을 능가하려고는 것은 그녀의 집과 어머니를 탈출하려는 욕망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집은 그녀가 예기치 않게 오빠들을 잃은 장소를 매일 상기시켜주는 반면, 아이를 잃은 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어머니의 능력은 그 충격적인 기억의 닻이 된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억의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을 통해 그런 트라우마를 반복해서 직면하게 된다. 아픈 엄마를 돌봐야 하는 생활과 트라우마의 부담으로 숨이 막혀, 과거를 잊으려고 현재의 자유를 위해 노력한다. 외상을 극복하려는 그녀의 시도는 위장된 안정성에 대한 필요성으로 구체화된다. 그는 과거를 차단하고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남편, 파트너 또는 연인을 찾고 있다. 상상된 행복에 대한 이 무모한 추구는 그녀를 섬세한 상황에 놓았으며, 그녀의 행동의 잘못을 더욱 강화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남자는 일하는 곳에서 만난 화가 '옥희도'이다. 그녀는 그가 결혼한 남자임에도 자신이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바람을 피우게 한다. 이경이 보이는 행동의 절망과 이유의 부족은 옥희도의 망설임에도 불

구하고 계속 그를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반영된다. 또한 옥희도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떠나지도 않지만 이경은 그의 아내와 비합리적으로 싸움을 시작한다. 그녀는 다른 여자의 남편을 훔치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아내가 보는 앞에서 뻔뻔스럽게 연애를 한다.

옥희도를 얻지 못하고 자신이 믿었던 행복에 도달하는 데 실패한 그녀는 즉시 초점을 바꾼다.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쉽게 옮기는 것은 감정의 피상성과 그녀의 행동 뒤에 있는 실용주의를 보여준다. 자유를 쫓는 그녀가 택한 다음 남자는 '조'라는 군인이다. 한국에 주둔 한 미군 병사인 조는 이경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가 자신의 구원이라고 믿은 그녀의 절망은 모텔에서 비밀스러운 만남으로 확대된다. 그를 오래 알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쉽게 그와의 성적인 관계에 동의한다. 이 두 남자와의 두 관계는 그녀의 감정에서 완전히 차단된 것이며, 트라우마의 사슬을 제거하려는 잘못된 시도에서 추구된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오빠들의 상실에 대한 감정을 막으려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마음의 문제인 이러한 관계조차도 사랑이 아닌 절망에서 발생한다. 그녀의 감정을 차단하고 과거를 무시하는 것은 욕망의 결과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부정을 쌓아 항상 트라우마를 악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조와 함께 모텔 방의 어둠 속에 갇힌 그녀는 자신이 무시한 것을 인정하도록 강요된다. 오빠의 죽음을 둘러싼 순간에 대한 생생한 회상은 그들의 관계를 방해하고 트라우마 경험을 악화시킨다. 이 순간과 그에 이르는 그녀의 행동은 PTSD 를 다룰 때 트라우마로부터의 탈출이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예가 된다. 이경을 더 나은 미래와 행복으로 이끄는 대신, 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정신적,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더 심각한 PTSD 에피소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는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를 다시 한 번 지적한다.

같은 소설에서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의 또 다른 예는 주인공의 어머니이다. 주인공의 눈을 통해서만 그녀를 볼 수 있지만, 주인공이 서술한 몇 가지 부분을 보면 어머니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녀는 이경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며 매일 두 아들을 잃고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 끔찍한 밤에 아들을 묻어야 했던 그녀는 현재와 어머니로서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녀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는 방식은 침묵과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로 일어난다. 그녀는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들은 몽땅 잡아가시고 계집애만 남겨 놓으셨노"[63]라고 말하며,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 아들들의 기억의 착각 속에서만 살기로 결심하고 있다. 가족을 지탱하는 일은 자기의 딸에게 맡기고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잊어버린다. 아들들의 죽음에서 길을 잃은 그녀는 아직 살아있는 딸을 완전히 무시한다. 자기의 트라우마를 무시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녀는 거의 긴장 상태에서 먹고 말하고 살기를 거부한다. 이 상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외상을 피하려 하는 경향의 예로, 딸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상처를 준다. 현실을 탈출하고 자신의 마음과 사랑하는 아들들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 가면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처리하지 않는 그녀는 궁극적인 대가를 치른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잃음으로써 아들을 잃는 트라우마에 대처할 능력이 없었던 대가를 지불한다. 필요한 영양과 인간의 상호 작용이 부족한 몸은 서서히 약해지고, 이로 인해 병에 든 그녀는 결국 그녀의 딸의 무력한 보살핌 아래 죽음으로 이어지고 만다.

외상을 거부하는 다음 사례는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에서 발생한다. 이 단편의 주인공은 전쟁 관련 외상을 다룰 때의 첫 번째 접근법이라는 측면에서 이경과의 유사성을 공유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결혼을 통해 안정에 도달함으로써 전쟁과 가족의 손아귀를 피하려고 한다. 남자를 피난처로 삼는 것은 불행히도 이경이 성관계를 통해 치유를 추구했던 것과 같은 의미 및 효과를 가지고 있다. 어린 시절에 그녀는 전쟁을 경험해야 했고, 그것이 그녀의 성장에 미친 감정적 영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비

[63] 박완서, 『나목』, 세계사, 1995, 357 면.

롯한 많은 여성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 몸을 파는 것을 목격한 이후 어머니와의 긴장된 관계는 그녀가 탈출하고 싶은 기억이다. 과거를 무시하려 하는 그녀는 결혼 생활의 안정과 그녀를 돌보는 남자를 얻고자 서두른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과거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음식이 불확실한 위치에 처해있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다.

20 년의 기간 동안 그녀는 이미 세 번 결혼하고, '자연스러운 기질'로 인해 두 번 이혼한다. 안정된 가정에 대한 절망과 과거로부터 자신을 떼어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루어진 행복에 대한 각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 모든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인물은 완전히 놓을 수 없으며 반발적으로 살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녀가 각 결혼 생활에서 어떤 느낌이 든다면 불행히도 그녀를 따라 가섰다. 아직 시작 단계인 마지막 결혼조차도 파트너 간의 불안정의 징후를 볼 수 있다. 사랑으로 결혼하는 대신 그들은 상호 이익에 기반한 결혼을 하는데, 주인공의 경우에는 자신이 상상한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관계는 실패로 끝나왔으며, 남자에게서 찾은 안정은 안타깝게도 이경이 성관계에서 치유를 추구한 것과 같은 의미와 효과를 가지고있다. 각각의 결혼과 그 실패는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여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실패한 사례를 나타낸다. 그녀의 과거와 어린 시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인공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한 감정 또한 차단한다. '부끄러움'은 그녀의 감정 상태와 그녀의 모든 행동으로 인한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의적인 감정이다. 이 수치심은 안타깝게도 그녀가 느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의 대표자가 된다. 이것은 그녀의 전반적인 감정 상태와 삶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더 큰 문제를 지적한다. 그녀는 과거와 그녀의 트라우마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과 기본적인 인간 감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닫는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에서, 트라우마로부터 도망쳐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잘못된 시도는 실패한 결혼으로 표현되며, 그 행위와 결과의 반복성은 실패의 사슬을 끊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마지막

으로 자신을 자유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에서 행복에 대한 그녀의 시도는 외상을 다룰 때 사용되는 잘못된 방법의 예가 되었다. 그녀는 과거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결혼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고통과 외상을 피하려는 반복된 시도를 보여준다. 각각의 결혼이 아주 일찍 실패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강조한다.

살펴볼 또 다른 작품은 『엄마의 말뚝』이다. 어머니는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의 원인과 효과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또 다른 경우를 보여준다. 전쟁이 끝난 지 몇 년이 지나도 어머니는 과거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들의 죽음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는다. 이 소설에서 우리는 『나목』에서 본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트라우마로부터 탈출하고 치유를 회피하는 것은 어머니의 이야기로 표현된다.

6.25 전쟁 동안 아들을 잃은 화자의 어머니는 트라우마를 다스리고 이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능력이 없다. 딸과의 관계가 긴장되고 전쟁이 끝난 후 몇 년이 지났지만 과거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며 아들의 죽음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가족의 기능적인 일원이지만, 그녀가 아들을 잃은 고통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과거에 대해 인정하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되살려야 하는 유일한 순간은 의학의 영향으로 일어난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순간의 회상을 경험하고 그가 다시 한번 죽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 했다. 그러나 이 순간은 너무 늦었으며 의학적으로 유발되어 치료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녀의 트라우마를 강제로 되찾은 직후 그녀는 안타깝게도 사망한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사망 침대에서도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며 치유되지 않고 묻히게 된다. 86 세의 노년기와 허약한 건강으로 인해 과거와 그로 인한 고통을 다룰 시간은 이미 지나버렸다. 화자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트라우마를 탈출하는 것으로는 치유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의 질과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간도 정답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수년 후 어머니는 약물을 통해 트라우마의 일부를 표현할 수 있었지만, 좋지 않은

건강 상태와 트라우마에 대한 통찰력의 부족으로 그 이상 나아가는 데는 실패한다.

어머니의 모습에 더해, 트라우마의 치유에 실패한 또 다른 예는 오빠의 경험으로 표현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한국 전쟁 동안 군대에 강제 징집되었다가 변하여 돌아온다. 그는 신체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 구조 또한 완전히 파괴되었다. 가족에게 돌아온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히 폐쇄되어 아내, 자녀 또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적군에게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다. 과거의 경험과 그것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압도된 그는 감정에 굴복하고, 그 감정을 처리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할 것이 예정되어있다. 가족과 감정적으로 멀어지고 불안의 원인인 전쟁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회피적 태도의 분명한 예이다. 그는 영원히 숨거나 우호적인 영토로 탈출하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그의 가족에게 이 탈출 행동을 돕기 위해 모든 소유물을 팔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한다. 그는 분쟁 지역에서 숨겨지고 적의 영토에서 살아가는 불확실성에 직면할 필요가 없으며 자기 가족에 대해 가져야 할 모든 관심은 자신의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의 불합리한 행동,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 여동생을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그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불행히도, 자신의 트라우마의 압력에서 탈출하려는 그의 시도를 대표하는 이 비정상적인 행동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난다. 자신의 어머니처럼, 그는 성숙할 기회와 트라우마를 처리할 방법의 이해를 잃고 마지막까지 그 트라우마의 통제하에 살아간다. 적군에 의해 발견된 그는 결국 총에 맞아 죽음으로써 정신을 회복하고 트라우마를 극복 할 수 없게 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라는 소설에서도 트라우마로부터의 탈출로 치유에 실패한 상황이 제시된다. 『엄마의 말뚝』에서와 유사하게 정신적 충격을 받은 오빠가 전쟁 내내 살아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외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반복한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는 최전선에서 돌아온 오빠의 모습과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은 행동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가족에게 돌아온 그는 불확실한 시대에 특유하지 않은 침착함을 보여주는데, 작가조차도 그 상태를 있지만, 시대와 내면의 투쟁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평온함은 곧 산산조각나고 오빠는 트라우마에 제압당한다. 말을 더듬고 불안해하는 그의 정신은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외국 병사들에 대한 모든 소리를 확인하려는 그의 절망이 중심이 된다. 지나가는 병사들의 위협을 받지 않고 그들이 있던 지역을 탈출할 계획을 세우는 것 외에도 그는 가족과 의사 소통을 하지 않는다. 가족들에게 그들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른 병사들과 비교할 때, 오빠는 비정상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트라우마의 명확한 예를 보여주며 천천히 과거를 직면하고 받아들이려고 시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개인의 초상화를 만든다. 그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이에 대처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적절히 처리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던 트라우마 경험의 새로움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이 상황에서 그를 괴롭힌 것은 도망친다는 태도로 더 강조되다. 가족으로부터 감정적으로 자신을 닫고 최전선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한 뒤, 그렇게 큰 불안의 근원이었던 곳에서 육체적으로 도망치려는 그의 간절한 열망이 이어진다. 처음에는 이 도피 욕구가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으로 대표되고, 이후에는 불리한 상황과 전쟁의 예측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척을 방문하려는 욕망으로 표현된다. 가족의 안녕을 염려하지 않고 불확실한 시기에 무분별하게 방문을 계획하는 것은 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와 탈출을 시도함으로써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그의 절망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결국 그는 자신의 계획을 이행하고 아내의 가족을 방문하게 된다. 그 방문이 끝나고 자기 가족과 합류한 후 그는 곧 잠에 빠져 죽는다. 방문으로 어떤 성취도 이루지 못한 채, 트라우마를 실제로 처리하지 못한 채 그는 죽음이라는 도피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다. 한국 전쟁 경험의 일환으로 트라우마를 가진 오빠는 자신의 트라우마로부터 지속적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삶의 질이 낮았던 시절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을 뿐이다.

3.2. 트라우마의 인식과 극복

앞 절에서는 박완서의 소설에 나타난 트라우마 극복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식을 설명했다. 현실 도피주의가 외상 생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등장인물들에 의해 묘사된 트라우마를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전 장에서 저자가 트라우마와의 실패한 상호 작용의 예를 제공했다면,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희망을 제공하고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다루는, 치유의 올바른 길에서 시작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해결하고 직면하기로 결정한 인물을 살펴보고 자기 삶과 행복에 대한 트라우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치유의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트라우마를 마주하는 첫 번째 주인공은 소설 『나목』의 이경이다. 그녀는 한국 전쟁 중 여성의 운명과 그 복잡한 심리적 영향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다. 그리고 그녀는 우울증, 불안, 생존자의 죄책감 같은 일련의 정신적 문제들을 보여주며, 또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자기 과거를 극복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동안 그녀의 삶은 과거로의 회전으로 전쟁의 정신적 효과에 대한 포괄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또한 트라우마를 인정하고 치유를 장려하기 위해 의도된 정서적 진화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녀의 트라우마는 전쟁 중 오빠들의 죽음에 의해 촉발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PTSD, 생존자의 죄책감, 우울증, 불안의 형태로 전쟁 여파를 처리한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그녀는 과거에 묶여 있고 균형 잡힌 정신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삶을 이어갈 수 없다. 그 사건을 따라가는 그녀가 겪는 두려움과 고통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감정을 차단하고 잘못 도망치려는 시도로 진행되어 정신 상태를 악화 시키지만, 그녀는 자기 이해 지점에 도달한다. 이경은 옥희도와 조와 두 번의 실패한 관계를 겪었고, 모녀 복잡한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어머니를 잃고, 자신이 추구하고있는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태수와 사랑 없는 결혼을 시작했다. 자가 치유의 길에서 그녀의 깨달음은 외상을 치유하는 주요 접근 방식 중 하나를 가리 킨다. 과거를 직면하는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트라우마를 극복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완전히 인정하고 그것을 치유의 첫 단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경의 경우에는 그녀의 PTSD, 생존자의 죄책감, 우울증, 불안은 과거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치유를 향한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트라우마를 인정해야한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그것을 수용하기위한이 전환은 비록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가 가족의 집을 떠날 때 절정에 이른다. 그녀의 집은 두 오빠의 끔찍한 죽음을 떠올리게 했으며 그 여파로 공포와 비참함의 장소였을 뿐 아니라 그녀가 잃어버린 행복의 씁쓸한 상징이기도 했다. 태수가 철거를 조직하고 이경이 그 결정을 완전히 승인하는 것은 자신을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과거를 받아들이는 순간을 표현한다. 이 중요한 순간은 다음 인용문에서 더 잘 볼 수 있다.

> 나는 전상을 지닌 고가를 비로소 연민과 애정으로 바라봤다. 오랜만에 고가를 고가로서만 바라봤다.
>
> 고가로부터 놓여 나 자유로워진 나는 밝은 아침 햇살에서 선불리 봄을 느끼기까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대문을 두드리지는 않았다. 나는 돌아섰다.[64]

[64] 박완서, 『나목』, 앞의 책, 245 면.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집에 대한 그녀의 느낌이 소설의 첫 장에서는 주로 공포와 비참함으로, 현재는 애정과 연민 사이으로 분명한 이분법으로 나타나 변화의 첫 징후를 관찰할 수 있다. 이 정서적 전환은 그녀의 정서적 성숙을 나타내며, 이경은 더 긍정적인 정서에 개방되어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의 즉각적인 반응이었던 얼어 붙은 접근 방식을 놓아 버린다. 더욱, 그 집을 다시 한 번 "고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녀의 오빠들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그녀의 삶에서 그 집의 위치를 분리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보여준다. 한 번 더 그녀의 감정과 접촉하고 그 집이 불러 일으키는 기억에서 즉시 도망칠 필요없이 그녀가 치유에 얼마나 큰 걸음을 내딛었는지 강조한다. 그 순간은 그녀의 해방의 마지막 단계를 나타난다. 봄과 아침 햇살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 되고, 그녀는 집에서 벗어나 과거를 안아주고 그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처음에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모한 인물을 보았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그녀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균형 잡힌 삶을 대가로 트라우마의 족쇄를 파괴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을 허락하는 침착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녀의 각성은 그녀의 감정적 성장과 병행되는 느린 과정이며, 그녀의 과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경에게 치유의 길은 그녀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놓아 버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기 과거와의 대결로 가득 차있다.

「부처님 근처」에서도 치유의 개념은 『나목』과 비슷한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경과 비슷하게,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처음에는 트라우마를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지만, 그녀의 길을 다시 한 번 찾는 데 성공한다. 아버지와 오빠가 사망하고 처형된 끔찍한 여파를 처리해야했던 주인공의 슬픔은 시신을 치우는 일에 국한됐다. 그들의 죽음을 적절하게 슬퍼하고 그것을 둘러싼 끔찍한 세부 사항을 처리하는 적절한 설정이 없으며 이 모든 것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뒤로 밀려났다. 반복적으로 자신의 트라우마와 슬픔을 숨기려 하고 트라우마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는 어머니를 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을 연기할 뿐이었다. 일상 생활과 매일의 행동에 존재하지만 트라우마와 그 영향은 무시되었으므로 어머니와의 관계에 주는 영향과 자기 희망에 대한 그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았다. 수년 동안 트라우마를 인정하지 않고 치유의 잘못된 길을 걸어온 주인공은 결국 그녀의 행동과 태도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경은 자신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한 번 자신의 길을 찾게 된다. 정신상태와 정신기능에 맞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녀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주요 방법 중 일부를 보여주는 치유의 길을 걷는다. 그녀가 취하는 첫 걸음은 다음 문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녀의 심리적인 문제의 주요 원인뿐만 아니라 그녀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망령이 처박혀 있는 곳이었다. 나는 그 들이 있는 곳을 명치근처에서 체증을 의식하듯 내 내부의 한가운데서 의식해야만 했다. 그 느낌은 아주 고약했다. 어머니와 함께 두 죽음을 꿀꺽 삼켰을 당시의 그를 클하기도하고 뭔가가 철썩 무너져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속이 뒤틀리게 메슥거리기도 하던 그 고약한 느낌은 아무리 날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았다.[65]

이 인용문에서 트라우마를 다룰 때 필요한 첫 번째 단계를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 진술은 자신의 트라우마에 대한 그녀의 인정을 나타낸다. 그녀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원래 문제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과 어머니의 삶에 야기한 부정성을 인식하게 된다. 가족의 죽음을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내면의 불균형을 일으켰고, 겉보기에는 좋은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고갈되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두 가족을 잃었을 때 슬픔이 즉각적인 반응이 되어야 했지만, 그들은 육체적으로 병을 앓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몰락을 유발하고 치유를 방해하는 어떤 느낌도 억압했다.

---

[65] 박완서, 「부처님 근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 앞의 책, 110 면.

그 죽음의 '삼킴'은 그들이 그 사건들을 그들 자신 안에 묻고, 그들이 '지나가는 날들과 함께 소멸 될'것이라는 희망으로 그들을 상대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독이 제거되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기억은 그들의 정신 상태와 삶의 질을 서서히 저하시키고 있었다.

이 인물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치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받아들인 그녀는 이제 변화와 치유를 원한다. 그녀의 마음에 타락한 침략을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고 그 죽음의 영향에서 자신을 정화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 단락에서 아름답게 설명하는 것처럼 자신의 고통의 주요 원인을 제거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나는 그것들을 삼켰으니까. 나는 망령들을 내 내부에 가뒀으니까. 나의 망령들은 언젠가는 토해내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는 체증이 되어 내 내부의 한가운데에 가로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차차 나는 더 묘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66]

이 인용문에서 그녀는 자신의 고통의 원인으로 가족의 죽음을 성숙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반응과 그것이 자신의 삶에 주는 영향을 비판한다. 이 인물은 트라우마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엄청난 정서적 성장을 보여준다. 자신이 목격한 사건에 대한 그녀의 과거의 접근 방식은 잘못되었으며, 그녀는 수년 동안 여기에 갇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몇 년 후 그녀는 마침내 자연스러운 슬픔의 과정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고, 그녀 내부에서 자극하는 모든 감정을 포용한다. 다시 한 번 애도의 과정이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갇힌 영혼을 해방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 들였다. 애도는 그녀의 과거 트라우마에 대한 인정과 대결의 몸짓이 된다. 한 번 더 애도하는 과정이 그녀의 삶에 중심적인 단계를 밟게 되면, 이번에는 그것이 그녀의 수감된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66] 위의 글, 110 면.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웃집에서 장례식 도중 일어나는 울부짖음을 관찰한 그녀가 희망을 다시 찾아내는 것은 그녀가 하는 행동의 진실성을 상징한다.

> 나는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삼킨 죽음을 토해내고 싶었다. 그 무렵 나는 낯선 길모퉁이 초상집에서 들리는 곡성에 도 황홀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오래 서성대기가 일쑤였다 저들은 목이 쉬도록 곡을 함으로써, 엄살을 으로써, 그들이 겪은 죽음으로부터 놓여나리라. 나에겐 곡성이 마치 자유의 노래였다.[67]

이 단락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다룰 때 내부에서 솟구치는 모든 감정을 내보내는 자유는 그러한 사건이 자신의 삶과 감정에 미칠 수 있는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자유의 노래로 간주되는 통곡은 감정이 내보내는 것이 자신의 내면과 접촉하여 정서적 영향이 있는 모든 사건들을 적시에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그녀가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을 인정하고 가족과 함께 그들을 애도해야 했던 한 예다. 이것은 자신을 치유하고 자신의 정신을 지탱하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단계로서 정서적 해방과 트라우마를 주는 과거의 고통을 다시 한 번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주제에 대한 가족의 관심이 부족하여 그녀는 치유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주로 그녀의 이야기를 오빠와 아버지가 사라진 뒤의 진실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적어 내려가고, 출판 행위는 진실을 포용하는 그녀 자신의 방식이 된다.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대화치료'를 택하여 과거의 기억을 공개적으로 정리하는 자신만의 환경을 조성한다. 똑같은 경험을 한 가족들과 공유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그녀의 '말하는 치료법'은 글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자신의 감정적 진화와 과거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 역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사

---

[67] 위의 글, 111 면.

람을 잃고 애도하는 과정이 막히는 일은 인정과 자각을 통해 처리된 반면, 그녀의 치유에 있어서 마지막 관점은 죽음에 대한 그녀의 관점 변화인 것 같다.

> 나는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운 죽음이 얼마나 큰축이 될 것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흉한 죽음이 얼마나 집요한 저주인가를 알기 때문에. 아아, 이제 다신 어머니에게 엄살일랑 떨지 말아야겠다. 어머니의 고운 죽음을 위해서. 나는 처음으로 털끝만큼의 혐오감도 없이한 죽음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혐오감은커녕 샘물같은 희열로 그것을 생각했다면 불효까. 불효라도 좋다. 나는 내 어머니의 죽음으로 내 오랜 얽매임을 풀고 자유로워질 실마리를 삼아볼 작정이다.[68]

마지막 줄을 보면, 삶에 대한 그녀의 새로운 관점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그것이 평화롭게 일어날 때 주어진 시간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단계인 치유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마지막 단계를 전달한다. 애도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발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오빠의 상실을 정상화하고 어머니의 상실에 대처해야 할 순간에 대한 균형 잡힌 반응을 예상하는 것이다.

치유 가능성이 묘사되는 또 다른 이야기는 단편소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이다. 이 소설에서 '부끄러움' 또는 그것의 부족은 억압된 과거와 과거 사건에 의해 무감각해진 트라우마를 입은 인물의 상징과 증상을 제시한다. 그러나 치유의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부끄러움'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길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의미를 얻는다. 전쟁에서 살기 위해 몸을 팔도록 강요받은 여자의 딸인 그녀의 과거와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인 현재와 미래를 분류한 그녀는 이 수치심에 대한 어떤 감정도 멈춰있다. 이것이 트라우마에 대한 그녀의 초기 반응이었다. 앞서 논의했듯이, 그녀는 더 나은 미

---

[68] 위의 글, 120 면.

래를 바라며 과거를 탈출했지만 실제 결과는 없었다. 그녀의 현재 삶의 질과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쳤던 과거의 무감각함은 그녀의 마음 속에 서서히 인식을 얻고, 수치심이 생기는 것은 치유의 상징이 된다. 천천히, 그녀의 행동의 잘못됨과 그녀의 행동의 무의미함이 그녀의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한다.

> 그럼 나는 이번 남편과도 헤어지게 되려나 싶어 다시 콤팩트를 꺼내 얼굴을 비춰 본다. 또 한 번 시집을 가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확인으로 스스로를 겁주기위해서다. 눈가의 두렷한 늙음보다 차라리 더 짙은 온몸의 피로, 그냥저냥 안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새삼 간절하다.[69]

이 순간은 그녀가 경험하고있는 느린 깨어남에 주목한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과 과거에 했던 결혼들이 쓸모 없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자기 인생의 불안정으로 그녀는 너무 늙고 지쳤다. 그녀가 묘사하는 피로는 모든 잘못된 곳에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그녀가 가지고있는 트라우마를 무시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거울은 그녀의 진정한 자아를 엿볼 수 있게 만드는 도구로서 그녀가 붙잡힌 악순환에서 빠져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탈출의 시간은 끝나고 과거와 그의 기억을 인정해야 한다는 자각이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원하는 자유와 행복은 주인공이 이전에 차단한 감정인 '부끄러움'이라는 은유를 통해 표현되지만, 그녀가 얻은 깨달음에 따라 표출된다. 단순한 외출에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과 존재하지 않았던 부끄러움이 쏟아진다.

> 아아, 그것은 부끄러움이었다. 그 느낌은 고통스럽게 왔다. 전신이 마비됐던 환자가 어떤 신비한 자극에 의해 감각이 되돌아오는 일이 있다면, 필시 이렇게

---

[69] 위의 글, 326 면.

고통스럽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렇게 환희롭게. 나는 내 부끄러움의 통증을 감수했고, 자랑을 느꼈다.[70]

이 인용문은 그녀가 억압했던 모든 것이 돌아 오는 정확한 순간을 제시한다. 부끄러움은 고통을 포함하여 그녀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일으킨다. 억압된 삶의 시작이었던 부끄러움도 그녀의 감정을 풀어주는 해답이자 해결책이다. 비록 그 감정 중에는 고통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전반적인 웰빙에서 그 고통의 의미와 힘을 깨닫는 올바른 사고 방식에 있다. 기쁨의 눈물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녀의 깨달음의 중심이자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길의 시작이다. 이제 자신의 감정을 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과거와 트라우마에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

치유의 길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포용할 필요성으로 다시 한 번 제시된다. 주인공은 서서히 감정을 되찾는 하반신 마비 환자와 비슷한 정서적 균형을 얻는데, 이는 그녀의 원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그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슬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일어나도록 함으로써이다.

이 서사는 트라우마를 다루면서 주인공의 정서적 발전과 극복의 길을 모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 교육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는 치유와 정서적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금속 건강의 이면에 있는 오명을 제거하는 상징이 된다. 이것은 문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교훈으로서 본문을 마무리한다.

'부꾸러움을 가르칩니다', '부꾸러움을 가르칩니다' 라고. 아아, 꼭 그래야 할 것 같다. 모처럼 돌아온 내 부끄러움이 나만의 것이어서는 안 될 것 같다.[71]

---

[70] 위의 글, 327 면.
[71] 위의 글, 333 면.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트라우마를 겪은 자신을 치유하고 찾는 개인의 길을 강조한다. 그녀의 학습에서는 부끄러움이 답이었으며 자유를 향한 새로운 길은 공유되어야 한다. 방아쇠는 다를 수 있지만 감정과 접촉할 필요가 있다.

일상 생활에서 피하려고 했던 부끄러움 은 그녀에게 신선한 공기의 숨결이 되고, 이로 인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게 된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능력은 그녀에게 과거와 그의 트라우마의 사슬을 제거하고 미래를 더 나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다. 또한, 이 모토는 금속 건강에 대한 오명을 제거하는 상징이 되고, 치유와 정서적 균형을 이루는 길로서 그 존재를 인정한다.

주인공의 27 세 때의 기억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박완서의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은 제목이 제시하고 있듯 그 여의사의 의사로서 마지막 3 일에 대한 내용이며, 각 장의 주제는 그녀가 은퇴할 때까지의 카운트 다운이다. 그녀의 지난 3 일 간의 이야기는 젊은 시절과 비교해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발전을 엿볼 수 있다. 젊은 시절 그녀의 자아는 당시 겪은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한 후회를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일을 하여 헌신적이고 계산적인 여자로 변한 반면, 나이 든 그녀의 자아는 “아직도 악몽에 갇혀 있”[72]다.

이 사례는 그 시점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지배를 받으며 분노와 증오와 부정을 드러내는 여성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자기가 과거에 묶여있었음을 인정함으로써 치유의 길이 시작된다.

이 소설의 마지막 날은 의사로서의 마지막 날일 뿐만 아니라 진실을 회피하고 그녀가 겪은 트라우마를 이해하지 못했던 마지막 날로 이해할 수 있다. 아기를 낳으려는 욕망은 마지막 해방의 순간까지 천천히 쌓이다, 아기를 출산하는 것은 그녀가 과거 행동을 되찾고 자신의 아기를 낙태하기로 결정했던 순간을 다시 재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순간이 된다. 수련의 마지막 날에

---

[72] 박완서,「그 가을의 사흘 동안」,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 앞의 책, 253 면.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마음의 변화와 새로운 삶의 관점을 보이며, 아기를 낳고 싶은 욕구도 더 강해진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녀의 직업이 더 이상 초점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목표가 된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새 집과 남자를 가질 가능성에 대한 마음을 먹고 그녀는 묶여 있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무감각함은 새로운 후회감에 의해 서서히 벗겨진다. 아기의 눈에 사로 잡힌 그녀는 수많은 생명이 세상에 탄생하는 것을 막는 행위에 대한 비난을 느낀다. 황씨의 조카의 눈을 보는 것은 그녀를 당황하게 하고 괴롭혔지만, 자신의 고통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당시 그녀의 상태에 이는 뒤로 제쳐진다. 그러나 55 세인 지금의 그녀에게 이것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혐오감, 후회, 과거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신호로 나타난다.

> 놀랍게도 그 경황중에 태아가 눈을 반짝 떴다. 이미 태아가 아니라 아기였다. 일순 나는 나를 관통하는 경외감에 소스라치면서 한 번만 더 힘을 주라고 힘차게 명령했다. 나는 내 목소리를 처음 듣는 남의 목소리처럼 신선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했다.[73]

이 인용문에서 보여주듯, 여의사는 황씨의 조카의 눈을 보며 불안을 느끼지만 자기의 트라우마를 직면할 정신적인 상태의 부족으로 이후로도 자기의 일을 계속한다. 반면, 55 세의 여의사에게 아기들의 눈이 나타난다.

> 내가 처형한 눈, 한번도 의식화되지 않은 눈, 앞으로 의식화될 기망이 전혀 없는 채송화씨만한 눈이 느닷없이 나의 어떤 지난날부터 지금까지를 한꺼번에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에 나는 전율한다.

[73] 위의 글, 231 면.

> 그 채송화씨만한 눈이 샅샅이 조명한 나의 생애는 거러지보다 남루하고 나의 손은 피 묻어 있다.(…)그 눈의 의식화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시계가 무한한가.
>
> 나의 지난날과 현재와 앞날을 종횡무진으로 간섭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고정관념을 뒤흔들려 든다.[74]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정서적 피해를 낳은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새롭게 얻는데, 이는 충격적이고 매우 감정적이다. 그녀는 얼어붙어 있던 상태를 벗어나, 과거의 행동이 잘못되었으며 트라우마와 관련된 것임을 이해한다.

> 이렇게 끊임없이 나는 내가 여자이기에 받은 치가 떨리는 박해의 기억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남에게 분배함으로써 나만의 억울함을 덜어 보려 하고 있었다.
>
> 그러나 그건 결코 덜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비참하고 추악하게 만들어 놓고 비교해도 역시 내가 더 비참하고 추악했다.[75]

자신의 과거의 실수와 트라우마를 해방하기 위한 여의사의 행위는 임신 8개월 된 아기를 출산시키고 아기의 어머니가 되게 하기 위해 그를 살려내는데 절망함으로 절정에 달한다. 이것은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킴으로 자신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으려는 그녀의 욕망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낙태하여 어머니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반영한다. 이 마지막 단락은 그녀의 의식의 목소리이며 그녀의 후회이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여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그녀의 상처를 넘어서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녀의 정서 발달은 마지막 문단에 이르렀다. 마지막 순간 우리는 과거를

---

[74] 위의 글, 248 면.
[75] 위의 글, 252 면.

넘어서서 마침내 움직이는 새로운 여성을 만나게 된다. 이 마지막 순간은 그녀의 진화를 요약한 것이며, 미래와 삶에 대한 그녀의 새로운 관점으로 마무리된다.

> 내 속의 통곡은 이제 한 방울의 눈물도 못 짜낼 것 같이 굳은 게 아니었다. 다만 크게 터져서 마음대로 범람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갈 동안을 주리 참듯 참고 있을 뿐이었다.[76]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산아를 품에 안고 살려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절대적인 정서적 자유의 순간을 나타나다.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감정 발달과 성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30 년 넘게 굳어진 자아는 이제 슬픔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내면에서 단단하게 억압되어 있던 모든 것이 이제는 포용되어 공개되었다. 출산한 아기의 죽음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행동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책감을 받아들인 마지막 해방의 순간, 감정을 느끼게 되는 순간으로 나타난다. 과거와 감정을 접하면서 여의사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치유된 개인이 되려는 희망으로 자신의 트라우마와 싸울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

결론적으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 만큼 트라우마 치유의 주제도 많은 인물들을 통해 분석했듯 복잡한 것이다. 「부처님 근처」의 주인공 이경,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주인공, 『엄마의 말뚝』의 오빠와 어머니의 트라우마에 대한 태도를 묘사함으로써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여러가지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투쟁 도주 반응(fight or flight reaction)에 의존하여 치유에 실패하는 경우와 트라우마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치유에 성공하는 경우를 또한 목격할 수 있었다.

---

[76] 위의 글, 263 면.

이 인물들 중에는 본능에 의존하여 트라우마 및 과거와 오랫동안 싸우며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한 인물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런 실수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자신을 쫓아오는 것에서 도망치면서 결국 불행에 빠지는 경향의 방법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구속하고 구원을 얻는 것 또한 볼 수 있었다. 많은 시행 착오와 수년간의 고난 끝에 그들 중 많은 인물들이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는 전환점에 도달했다. 과거에 대한 감정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비참함 밖에 남기지 않는다는 지혜를 얻음으로써, 이 인물들의 대다수가 그들의 과거와 트라우마를 받아들이고 그 고통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싸운다. 많은 논문에서 박완서가 자신의 소설에서 트라우마 치유를 촉진한 방식을 분석했는데, 본 논문은 여기에 각 인물의 개별 경험에 대한 통찰을 추가하여 이러한 종류의 분석에 깊이를 더하고자 했다. 각 인물의 트라우마와의 만남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방식과 치유를 향한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트라우마의 개별 경험에 대한 작은 사례 연구를 실현했다. 또한 트라우마 연구와 정신분석학의 더 넓은 범위에서 이런 글쓰기의 경험을 이해함을 통해 정신에 대한 작가의 경험을 통과하여 박완서의 트라우마에 대한 지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4. 박완서와 전쟁 트라우마의 개인적인 경험

지난 장에서 트라우마의 심리적 증상들과 이것이 전쟁 이후 수년간 희생자들을 과거에 얽매여 삶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게 괴롭힌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서운 기억, 악몽, 환각, 우울증이 기쁨에 대한 무감각으로 구체화되거나 혹은 타인과의 감정적 연결, 불안, 그리고 생존자의 죄책감 등 PTSD의 증상이 나타난 인물들의 모습을 보았다.

4 장에서는 전쟁 트라우마에 대한 작가 자신의 경험과 문학적 창작물을 지도로 삼아 박완서의 트라우마의 영향을 글쓰기 과정으로 옮겨볼 것이다. 지난 장들의 결론으로서, 작품에 나타난 전쟁 트라우마와 작가의 전쟁 경험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이어받아, 작가가 전쟁 트라우마에 대해 글로 써야 했던 이유를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함과 증상적인 관점에서 작가의 글로 작기 경험했던 전쟁 트라우마를 어떻게 느끼는지 관찰할 것이다.

4 장 1 절에서는 전쟁소설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박완서는 6.25 전쟁의 생존자로 알려진 사회비평가로 국민의 문제를 떠맡고 변화를 도모하는 작가이다. 전쟁소설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전쟁의 폭력, 전쟁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교육과 한 민족의 비극에 대한 증언의 측면 등 비판적인 측면을 강조한다.[77] 그러나 이 절에서는 글쓰기 경험에 대한 새로운 정신분석학적 접근법과 작가의 심리상태에 대한 인식을 제안할 것이다.

4 장 2 절에서는 허구적 소설과 자전적 소설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트라우마를 묘사하는 작가의 창작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허구적 소설과 자전적 소설의 차이가 작가의 의도 및 결과와 갖는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박완서의 트라우마와 글쓰기에 대한 경험을 보다 잘 이해할 수

[77] 김정은,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목소리의 의미 연구」, 87 면.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해 무의식적인 쓰기와 트라우마의 증상과 자신에 대해 쓴다는 의도와 치유의 필여성의 사이를 살펴본다.

4.1. 글쓰기를 통한 개인적 트라우마 증상의 이해

박완서는 한국전쟁 당시 가족과 함께 그 모든 공포를 경험했는데, 이 과거의 경험이 작품에 스며들어 더 현실적인 느낌을 준다. 이 모든 전쟁 문학의 이면에 있는 의미는 본고에서 앞서 언급되었지만, 글을 쓰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글쓰기는 예술적인 면과는 별개로 더욱 심오한 의미를 구현하고 있으며, 그 기능의 한계도 수년 동안 연구의 원천이 되어 왔다. 프로이트의 '대화치료(talking cure)'[78] 이론은 글쓰기가 정신질환을 완화하고 자기 표현과 치유에 도움을 주는 것을 설명하는 심리학적 도구가 된다. 작업치료로 사용되는 글쓰기는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감정의 처리를 촉발시켜 이를 정신에서 수용하게 만든다. 이는 '증언치료(testimony treatment)'를 이어받은 것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을 표현하여 치료하는 개인 또는 집단운동으로 장려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창의적 글쓰기의 이점에 대한 연구는 호스피스에서의 글쓰기 치료와 치료 도구로서의 개별 치료 세션의 사용을 촉진한다.[79]

박완서에 대해서는 전쟁에 관한 글의 치료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많다. 전쟁 중 겪었던 경험과 오빠의 죽음에 이어 그녀가 겪은 트라우마는 작품에서 마주치는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인정받고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치유의 필요성과 그것을 찾는 그녀의 노력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녀는 세계와 정신의 작용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뛰어난 작가로서, 변화를 촉진하는 자기의 시기보다 항상 앞서 있다. 그녀는 또한 심리학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작품 속에 통합하는데, 이는 진정한 자아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글

---

[78] '대화치료(talking cure)' 또는 '굴뚝 청소(chimney-sweeping)'는 처음에 베르사 파펜하임이 받은 언어요법을 설명하는 사용한 용어였다.

[79] Samson, Fiona “Creative Writing in Health and Social Care”. Jessica Kingsley Publishers. 2004

쓰기 행위와 박완서의 예술을 고려할 때 글쓰기의 치료적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

다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작가는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글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번에 상 받게 된 이야기는 내가 여태껏 여러 번 써왔던 이야기다. 그만큼 우려냈는데 무슨 맛이 남아 있을까마는 어머니의 고통을 되씹지 않을 수 없는 내 마음 속의 매듭 때문에 슬픈 마음이 앞선다. 다시 쓸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싶다. 이런 이야기로부터 가까스로 벗어 났다 싶어 훨훨 자유로왔던 것은 번번이 일시적인 환상일 뿐 이내 그 이야기에 발목을 단단히 잡힌 채인 자신을 발견하는 게 여태껏의 내 이야기의 한계였다. "(-1981 년 제 5 회 이상문학상 수상 소감에서)[80]

이 인용문을 보면 자신의 고통과 어머니의 고통을 처리하는 수단으로 소설을 창작한 박완서의 노력을 볼 수 있다. 작가 자신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동일한 방법이 반복되어 자신을 위한 치료 세션과 독자를 위한 교육 도구인 심리적 작품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의 작용과 그 표현은 복잡한 실체로서 정신분석학의 분야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의 분야가 확장될수록 문학적 분석에서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들이 생겨난다. 문학과 정신분석학의 관계는 치유의 영역을 넘어 표현의 영역으로 이어진다. 박완서의 경우 글쓰기의 기능은 문학의 교육적이고 비판적인 측면, 즉 증언의 치료적 특성을 넘어선다. 반복되는 패턴과 많은 상호텍스트의 예에 직면하여, 우리는 트라우마의 증상적 표현으로서 글쓰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박완서는 자신의 경험을 이용하여 심오한 것을 창조하기 위해 글을 쓴다.

---

[80] 홍혜미,「박완서 문학에 투영된 6.25 전쟁」, 단산학지, vol. 5, 1999, 366 면.

문학은 여성의 지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끔찍한 국가적 과거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의미했다. 작가는 등장인물들의 모습과 트라우마를 촉발한 경험,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방식을 통해 그 주제를 완벽히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제의 반복성은 무시할 수 없고 이런 글쓰기의 이면에 숨은 사고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반복적인 패턴, 즉 트라우마의 본능적 재현은 지난 장에서 허구적인 인물들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법에서 보았듯이 트라우마가 있는 개인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행동이다. 이러한 패턴은 플래시백, 꿈,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하게 하는 환각, 또는 그러한 순간들에 대한 기억을 드러내는 일상적인 행동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반복은 트라우마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이며, 강박적으로 주제에 집중하는 것은 반복 강박의 한 예로서 이해될 수 있다. 정신적 충격을 준 사건은 무의식적인 반복의 대상이 된다. 박완서는 자신의 문학과 한국전쟁의 연관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는 그녀에게 현존하는 트라우마를 암시한다.

> 책으로 내는 걸 피치 못하게 되자 그런 것을 사정 두지 않고 걸러내려 했지만 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그때의 상처를 객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치유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그것을 다시 읽음으로 6.25 의 망령과 내 문학과의 끊을 수 없는 상관관계를 재확인했을 뿐이다.[81]

그렇다고 해서 작가로서 경력을 쌓는 주된 이유가 그녀의 트라우마 때문은 아니다. 문학부의 미래 학생으로서, 그리고 다양한 작가들과 친분을 쌓고 그 서클에서 뛰는 것으로 알려진 그녀로서, 확실히 그녀의 문학적 재능을 암시한다. 그러나 트라우마가 그녀로 하여금 창작을 시작하게 만든 하나의 자극일 수도 있을 것이다.

---

[81] 박완서, 「다시 6 월에 전쟁과 평화를 생각한다」, 『여자와 남자가 있는 풍경』, 한길사, 1978, 109 면.

박완서의 첫 두 작품은 모두 한국전쟁의 그늘 아래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나목』과 『목마른 계절』은 한국전쟁 경험을 표현한 첫 작품들이며, 이후 더 많은 작품들이 그 사건을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 작가는 작가 생활을 시작한 이후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줄곧 6.25 전쟁을 배경으로 전쟁이 등장인물의 삶에 미친 영향을 다룬 작품 10 여 편을 집필했다. 그 중 많은 소설들이 전쟁이 가족에 미치는 즉각적인 물리적 영향을 보여주지만, 몇몇 작품들은 전쟁의 심리적 영향에 대한 더 많은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영향의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소설들에서 작가는 인간의 삶에 대한 전쟁의 완전한 통제, 그리고 전쟁이 현재와 미래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소설들은 전쟁에 대한 작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것에 대한 통찰력의 원천이 된다. 박완서는 6.25 전쟁 종전 이후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가정생활을 해왔다. 이는 그녀가 트라우마를 억압하고 전쟁의 참상을 현재로부터 밀어내기 위한 침묵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그러나 알고 있듯이 트라우마는 영원히 침묵하지 않고 그 존재를 어떻게든 드러내는데, 박완서에게 이는 글을 쓰는 순간으로 대표된다. 그 모든 세월 동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마침내 어떻게든 대변해 달라고 요청하고 글쓰기는 그녀의 외상성 증상의 배출구가 된다. 저자는 전쟁과 그 당시 젊은 여성의 경험에 대해 반복해서 글을 쓴다. 전쟁과 여주인공이 그녀의 작품들이 공유하는 유일한 유사점은 아니다. 오빠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와의 긴장된 관계 등이 그녀의 소설에서 반복적인 주제가 되어 중요함을 암시한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박완서는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계속해서 전쟁과 그 충격에 대해 다시 경험한다. 허구적 혹은 자전적인 소설들은 하나의 패턴을 따르는 듯 보이며, 심지어 같은 주인공이 그 속에서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인다. 박성천이 지적한 바와 같이 “『나목』과 『목마른 계절』을 읽고 이후의 『엄마의 말뚝』과 『그 산이 거기 있을까』를 읽은 독자라면 이미 읽은 텍

스트와 읽고 있는 텍스트가 상호텍스트적으로 구성되며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82] 되는 것이다.

만약 자서전적인 글에서만 나타난다면, 이러한 유사점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허구적 작품에서도 반복되는 요소로서, 이유가 불분명한 반복적인 패턴의 문제를 제기한다. 트라우마의 작용과 이에 대한 인간의 정신적 반응 방식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작품들 이면의 글쓰기 행위는 '증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박완서가 전쟁을 주요 주제로 소설을 쓴 것, 그리고 그녀의 허구적 소설과 자전적 소설이 보이는 줄거리의 유사성은 문학 창작 행위 뒤에 숨겨진 심리적인 과정을 암시한다. 물론 작가의 주된 목적이 국가적 과거사의 참상을 사회에 교육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소설에 스며들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작가의 자전적 작품을 언급할 때, 글쓰기의 기능은 앞에서 논의한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엄마의 말뚝』과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공식적으로 자전적 작품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이는 그녀의 삶과 전쟁 동안의 경험에 대한 의도적인 묘사가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글쓰기 과정의 치료적 측면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박완서는 기꺼이 자신의 삶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전쟁의 반복적인 경험에서 벗어나게 한다. 한국 전쟁에 대해 서술하는 모든 행동은 심리적인 여정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녀의 첫 글쓰기는 허구적 소설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전쟁 트라우마의 표현이지만, 자전적 소설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

[82] 박성천, 「박완서 소설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2012, 143 면.

4.2. 자전적 소설과 픽션 소설 비교를 통한 트라우마 치유의 제시

박완서의 소설에는 허구적 소설과 자서전 소설의 구분이 있는데, 이는 한국전쟁과 트라우마에 관련된 그녀의 글쓰기 과정과 심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차이점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구별을 유지함으로써, 전쟁 트라우마 및 저자의 트라우마 경험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작가 자신의 트라우마 경험의 범위와 결과적인 작품의 범위를 통해 둘을 비교할 것이다.

이 두 종류의 문학에 대한 분석과 박완서의 저술에서 그 기능을 분석하는 것은 각 장르에 얽힌 저작 의도를 정확히 규명하는 데서 출발할 것이다. 각 장르의 정의를 살펴보면, 그들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작가의 개인정인 트라우마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볼 수 있다.

자서전은 자기의 삶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쓰여진 자기의 삶의 이야기로 정의된다. 필립 르죈(Phillipe Lejeunne)에 따르면, 자서전에서 작가, 화자, 주인공은 동일해야 하며,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일하지 않으면 허구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83] 박완서의 소설은 허구적 소설과 자전적 소설의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 한국 전쟁 문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자서전으로 간주되는 소설은 『엄마의 말뚝』,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분석의 주제이다. 르죈의 자서전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이 소설들은 작가, 화자, 주인공의 공동화에 의해 결정된 틀에 맞다. 또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소설에서 1 인칭 주인공 화자는 “완서야! 완서야!”라고 작가

[83] Phillipe LeJeunne. ‘On autobiography’. Theory and History of Literature, Volume 52,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박완서의 이름으로 불린다. 뿐만 아니라 다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작가 자신도 이 소설들과 자신의 관계를 인정하고있다.[84]

반면에, 허구는 상상의 사건과 인물을 묘사하는 산문, 특히 소설 형식의 문학으로 정의되며, 꾸며낸 이야기와 인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소설, 드라마 등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보다 더 큰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사회적, 정치적, 또는 인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박완서의 전쟁 소설을 고려하면, 『나목』, 「그 가을 사흘 동안」, 「부처님 근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를 포함할 수 있다.

박완서는 이 소설들 하나하나에서 민족적 격변의 시기 동안 인간 정신의 작용으로 나아가는 여성들의 고난, 당시의 현실을 아름답게 묘사한다. 그 소름끼치는 시대의 목격자였던 작가는 허구의 세계로 한 국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전쟁을 묘사하고 독자를 교육한다. 나아가 2 장과 3 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충격적 경험의 깊이를 그린 그녀의 소설은 고도의 심리학적 내용 또한 말하고 있다. 트라우마의 시작, 즉각적인 후폭풍, 장기적인 증상 그리고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을 볼 수 있다. 허구적인 인물들을 통해 작가는 독자들에게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삶의 방식을 상상하는 도구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들이 전쟁의 영향을 심리적으로 겪고 있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목』에서 남자 없이 가족의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경은 여성이 일찍 성숙하도록 강요받고 남편과의 결혼생활에서 피난처를 찾으려 한 사례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처님 근처」 에서 주인공은 전쟁으로 인한 갑작스런 죽음, 비탄의 불가능,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이어지는 전쟁의 지배를 그린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에서 전쟁이 가족 관계에 끼친 긴장감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취약한 여성들이 군인들에

[84] 송명희.박영혜, 「박완서의 자전적 근대 체험과 토포필리아-『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 2003, 43-70 면.

게 몸을 팔아야 하는 상황 또한 볼 수 있다. 「그 가을의 사흘동안」에서는 최전방에서 젊은 여성이 강간을 당하는 비극적 상황과 더불어 전쟁이 희생자의 삶의 질에 평생 미치는 영향을 또 한 번 목격할 수 있다.

반면에 자서전은 자기의 삶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의 삶의 이야기로 정의된다.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에서는 어린 나이에 시작되는 그녀의 인생, 전쟁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끝나는 역사를 볼 수 있다. 심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서, 이러한 자서전은 전쟁의 악마를 퇴치하기 위한 그녀의 시도가 된다. 허구적 소설의 초점은 더욱 겉으로 드러나는 데 반해, 자전적 소설은 더 개인적인 글쓰기로서 자신의 삶을 적은 것이다. 이 '대화치료'를 수행하는 박완서는 과거의 족쇄를 벗고 자신의 삶을 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 자신을 치료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는 단편 『엄마의 말뚝』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원하는 충분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기에 작가는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으로 한 번 더 치유를 도전한다. 이 두 소설은 그녀의 삶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저자가 현재까지의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할 수 있게 한다. 전쟁 경험과 관련하여 『엄마의 말뚝』,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 젊은이들의 강제 징집, 난민들의 삶, 가족의 분리와 최전방에서 돌아온 PTSD 의 희생자를 목격할 수 있다. 각 장르의 정의에 의해 정해진 기대에 따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박완서 소설에 나오는 글쓰기 체험의 이중적 의미뿐만 아니라 지난 장들에서 살펴본 분석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접근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앞의 장에서 보았듯이, 소설의 인물들은 전쟁의 심리적 영향과 트라우마와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앞 장의 아이디어에 이어서, '소설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다', 즉 표현불가라고 여겨지는 트라우마는 이 소설 속에 구현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시콜콜 반복되고 있다. 객관적으로 이것들은 한 국가의 충격적인 과거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의도된 전쟁

의 허구화된 표현이라고 한다면,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는 작가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무엇인가를 서술하려는 저자의 본능의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모든 소설의 주인공들은 한국전쟁의 생존자로서 그들의 상태와 관련된 증상, 정신 상태, 진단 등의 복잡한 범위를 보여준다. 『나목』에서 이경은 우울증, 불안, 환각, 그리고 명백한 PTSD 의 증상들을 경험한다. 「부처님 근처」에서도 주인공은 오빠와 아버지를 애도하지 못한 결과 수년간 우울증과 생존자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 이런 종류의 증상과 경험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주인공을 가진 모든 소설에서,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험에 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심리적 측면을 더욱 분명하고 충격적으로 만든다. 자전적 소설인 『엄마의 말뚝』,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는 비록 전쟁의 사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것이 더 얼버무린 것처럼 보이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삶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1 인칭 서술자가 그 시대의 고난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심리적인 측면은 허구적 소설에서처럼 명백하지 않다. 전쟁에서 돌아온 오빠의 PTSD 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생존자의 죄책감을 느끼는 어머니는 전쟁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보여준다. 전쟁의 심리적 영향은 오빠의 심리적 변화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서 인정되지만, 그 내용을 더 깊이 볼 수는 없다. 트라우마 문제와 1 인칭 서술자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이러한 2 차 등장인물의 경험을 통해서라는 점과 그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내용 전체에 보다 객관적인 느낌을 준다. 1 인칭 서술 대신에 전체 내용은 객관적인 서술자에게서 기대하는 것과 같은 분열을 가지고 있다. 허구소설은 전쟁경험을 의도적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그러한 사건의 잔혹성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전쟁을 경험한 작가가 그 동안 상실과 고난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도의 심리적인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반면에, 삶에 대한 작가들의 묘사로서, 좀 더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 자전적 소설들은 서사에 대해 얼마나 더 분리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작가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글로 쓰고 정리하고 있다는 가정부터 시작해 자전적 소설에서 심리적인 내용과 트라우마와 투쟁의 사례를 더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조지 버나드 쇼는 자서전의 기능에 대한 약간의 통찰력을 제공한다. "모든 자서전은 거짓말이다. 나는 무의식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짓말을 의미한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가족, 친구, 동료에 대한 진실과 관련되어, 생전에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할 만큼 나쁜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를 반박하기 위해 살아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까지, 그가 억압하는 문서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사람은 없다."[85] 자전적 내용의 본래 목적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정직성은 실현되기 어렵다. 개인적인 이유에서든 정치적 검열에서든, 박완서는 덜 진실된 전기를 만들었다. 그녀는 자전적 소설에 비해 허구적 소설에서 더욱 진실된 내용을 강조한다고 말한다. 진실만을 쓰려는 그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면 그 내용에는 필연적으로 거짓말이 산재해 있다. 「나에에 기고」에서 박완서는 진실에 더 가깝기 때문에 허구를 표현 수단으로 택한다.

> 그러나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 붓이란 게 그렇게 뜻대로 나가는 게 아니었다. 하도 오래간만에 글이라는 걸 써 보니 그럴 만도 했다. 마냥 지지부진하다가 느닷없이 쾌속으로 나갈 때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쾌속으로 나갈 뿐 아니라 쓰는 데 쾌감까지 느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써진 부분일수록 다음날 읽어보면 실화가 아니고 내가 멋대로 꾸민 거짓말이었다. 전기를 쓴답시고 근거 없는 거짓말을 꾸며 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별 수 없이 그 부분을 파기하고 나면 다시 지지부진 안 써져서 끙끙거리는 상태로 돌아왔다. 그의 전기를 쓰는 데는 거짓말과의 싸움 말고도 또 난관이 있었다. 자꾸만 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였다.
>
> (…)

[85] George Bernard Shaw, "In the Days of My Youth," Sixteen Self Sketches, Constable. M.A.P. (1949).

나는 논픽션을 단념하는 대신 픽션을 쓰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나의 처녀작 『나목』이다. 초보적인 문학개론서 같은 데서 소설을 일컬어 허구를 통한 진실의 표출 어쩌고 하는 말은 흔히 본다. 그걸 체험적으로 느꼈다고나 할까. 전기를 소설로 바꿈으로써 상상력이 제한을 안 받게 되자 도리어 있었던 사실만을 모아 그[박수근]를 구성할 때보다 내가 이해한 그의 진실에 훨씬 흡사한 그를 창조할 수가 있었고, 그와 내가 함께 호흡한 한 시대를 더욱 생생하게 재현할 수가 있었다.[86]

자서전이 저자의 진리를 '말하라'는 것으로 예상보다 더 허구적이라면,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작가의 개인적 발전 과정에서 자서전은 그녀의 과거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다가 글쓰기를 수단으로 그것을 다루는 디딤돌이 되었다. 작가의 개인 트라우마 관점에서 보면 자서전으로 자기 트라우마를 인식하고 치유를 해본다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이런 유형의 글의 결과가 완전한 진실성은 아니었지만, 이는 작가를 과거의 비밀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의도였던 것이다. 이 자전적 소설은 전쟁이 낳은 자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예로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내용 면에서 허구적 소설은 자서전과 대조된다. 박완서는 허구소설에서 그럭저럭 당시의 현실을 그려내고 전쟁 트라우마의 심리적 초상화를 만들어 낼 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쓰고 자서전보다도 더 진실하게 묘사를 한다. 이것이 허구적 소설의 각각의 이야기가 그녀의 이야기고 각각의 허구적인 인물이 그녀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물론 그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허구와 진실은 결합하며, 작가의 의식적 의도와 그녀의 잠재의식의 영향력은 결합한다. 자전적 내용이 있다는 것을 몰랐더라면 그 소설들의 내용을 허구적 내용으로 혼동하

[86] 박완서, 호원숙 외, 『모든 것에 따뜻함이 숨어 있다: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씽크빅, 2011, 50-51 면.

기 쉬웠을 것이다. 그 외에도, 소설들을 비교할 때 상호텍스트성의 예가 많다. 비록 허구적 소설과 작가의 삶 사이에 인정된 연관성은 없지만, 이러한 허구적 소설의 주인공들과 작가의 삶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 허구적 소설과 작가의 삶을 살펴보면 주인공과 작가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 허구적 소설에 자전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박완서의 소설에서 반복되는 경향으로 자주 분석되었으며, 작가 자신은 허구적 소설에 스며든 이러한 자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87]

앞서 언급했듯, 그녀의 소설에서는 오빠의 상실이라는 반복적인 주제를 자주 마주치게 된다. 가족 구성원의 상실 및 모녀간의 긴장된 관계 또한 되풀이되는 주제들이다.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의 요소들은 한국전쟁의 주제와 관련된 소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꽤 광범위한 시간적 틀을 다루고 있다. 이 사실은 이러한 요소들이 작가의 마음속에서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작가가 자기의 삶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강조한다. 또한 그것들이 박완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 중 일부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쟁 중 아버지와 오빠를 잃은 일, 그리고 어머니와의 긴장된 관계는 작가의 글에서 반복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며 그녀의 삶의 순간을 규정해 온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작가와 자기 작품들 사이의 유사점은 주제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그녀는 허구적인 인물들과 비슷한 삶의 사건들을 공유한다. 박완서의 경우 자전적 요소가 넘쳐나는 허구 소설과 작가의 삶을 대표하지만, 상상의 실체가 불가피하게 섞여있는 자전적 소설에서 자신에 대해 쓰는 것의 노력이 뚜렷하다.

또한 한국전쟁을 다루면서 접근하는 이 두 장르의 이분법에서 자신에 대해 쓰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소설과 자서전의 연결은 자신에 대해 써야 하

---

[87] "나는 그 다음 날 <여성동아> 11 월호에 갱지로 된 부록 형태의 「나목」이 나온 날 그 걸 읽느라고 저녁을 걸렀다. 어머니의 상처와 새삼스레 마주치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고 쓰라렸다. 어머니의 자전적인 부분과 만나는게 싫었다.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는게 두려웠다." (박완서,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2, p.45.)

는 모순을 더 잘 이해하는 중심 무대가 된다. 전쟁에 대해 쓰고 자신에 대해 쓴다는 저자의 의도와 결과는 기대된 것으로 완전한 반합성에 있다. 이는 작가의 의도과 무의식적인 행동과 트라우마의 증상과 치유의 필요성을 묘사하는 박완서과 개인 전쟁 트라우마의 투쟁을 제시하는 도구가 된다.

박완서의 소설들은 비록 그 초기의 목적은 허구적인 등장인물을 통하여 전쟁의 현실을 허구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었겠지만, 실상은 작가의 삶의 터치와 그녀의 잠재의식을 표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나목』, 「부처님 근처」와 같은 허구적 소설은 주인공의 개인 생활을 다루고 있지만 아버지의 상실, 모녀의 긴장 관계 등 자전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이는 허구의 측면과 연결된다. 전쟁 중 의도적으로 여성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려고 계획했던 작품들에는 박완서의 삶과 가족, 그리고 그녀의 심리 상태에 속하는 자전적 내용이 담겨 있다. 허구적인 인물을 다룸으로써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한 개인의 심오한 심리적인 초상화는 물론, 작가의 심리 상태와 잠재의식의 작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통찰도 얻게 되었다. 한편, 작가 자신의 치유에 대한 의도적인 접근과 작가의 경험이 더 많이 담겨 있는 자전적 소설들은 상당히 동떨어진 느낌을 가지고 있어 심리적인 통찰력이 부족하다. 작가 자신의 경험을 다시 말하려는 의미로 이 소설들은 기억의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현실과 상상이 결합된 결과물을 지적한다. 이 경우에는 작가의 의도와 의식 정신의 작용은 신체적 측면은 묘사되지만 심리적인 측면은 인정되지 않는 내용에 이루어진다.

이 장을 요약하자면, 저자와 그녀의 문학 작품 사이의 분명한 연결고리와 심리적 관점은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소설에서 전쟁 문제에 대한 그녀의 접근법, 등장인물들이 전쟁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창조적인 과정을 통한 화제의 전반적인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작가의 창조적인 접근으로 얻을 수 있는 통찰을 보여준다. 만약 허구적 소설과 자전적 소설을 그녀의 심리발달의 단계로 정의한다면, 허구는 트라우마와의 투쟁과 그 영향을 경험한 작가정신의 표현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의 충격적인 과거

대처하지 못한 마음은 허구의 인물들과 전쟁에 대한 그들의 개별적인 경험을 통해 한국전쟁의 시간을 다시 재현한다. 전쟁을 배경으로 쓴 글들은 그녀가 꺼내지 못하는 반복적인 패턴이 된다. 반면 자전적 소설들은 저자가 트라우마를 타도하고 자신의 삶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전을 통해 '대화치료'에 접근하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작가는 치유를 이루고 과거의 쇠사슬을 뚫으려 한다. 역설적이게도 작가는 허구의 사회적 제약 없는 환경에서 '자신에 대해 쓴' 반면, 개인의 불안과 한계에 의해 제약된 자전은 작가의 주요 삶의 사건들을 요약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역설은 전쟁 트라우마가 작가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그녀의 글쓰기에 미친 영향, 그리고 결국 글쓰기 수준으로 표현되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배경을 설정한다.

5. 결론

전쟁은 전선의 병사들 간의 싸움, 탄약의 충돌과 그에 따른 죽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전쟁이든 아니든, 전쟁의 영향은 최전방 뒤에서 더 많은 폭력행위로 번지고 이러한 종류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물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힘을 발휘한다. 박완서 작가는 자신의 작품과 특히 전쟁의 국가적 트라우마를 현재의 의식 속에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호평을 받는 작가다. 그 당시 국민들이 직면했던 공포를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직면했던 심리적 고난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본고를 요약하자면, 박완서의 전쟁문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트라우마 문제에 대해 그것이 제공하는 넓은 심리적 통찰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저자와 그녀의 문학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소설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전쟁경험이 이를 경험한 불행한 이들의 삶에서 무엇을 대변하는지, 나아가 그것이 박완서에게 가졌던 힘에 대해 자세히 관찰하고 새로운 통찰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전쟁의 주요 후유증 중 하나인 심리적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이 인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법들과 그 쇠약한 정신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성공적이거나 덜 성공적인 접근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충격적인 사건은 사람의 영향과 함께 '흔히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소설에 대한 심리 분석을 통해 관찰될 수 있듯이, 그 영향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지배력으로 보편적인 지위를 획득한다.

또한 작가의 삶과 문학 창작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넘어, 그녀의 글쓰기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다. 정신분석의 대상으로 제공되는 심리적인 내용이 가득한 소설들로 시작하여 작가에게 연구를 집중했다. 그녀의 인생 경험과 전쟁의 영향으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문학 창작에 스며든 작가 자신의 조각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박완서는 전쟁을 경험했고 당시의 다른 사람들처럼 상실과 비극을 겪었다. 그 비

극적인 시간들에 대한 연결고리가 그러한 상실들에 한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 혹은 그녀의 소설의 표현적인 내용에 한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서 '현상할 수 없는 것을 표현했다'고 말한 그 방식을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저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이 그녀의 글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이 분석을 요약하자면, 두 가지 주요 단계를 관찰할 수 있다.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길과 박완서의 문학에서 트라우마의 의미, 먼저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의 '진단'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나중에는 이런 유형의 소설을 위한 작가의 글쓰기 경험을 더욱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2 장에서는 박완서가 창조해낸 고도의 심리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트라우마와 그 피해자인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이미 있어왔지만, 전쟁 트라우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저자가 어떻게 문학을 이용했는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정신적 충격을 동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증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목」, 「부처님 근처」, 『엄마의 말뚝』,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와 「그 가을의 사흘동안」의 주인공들은 정신분석 과정을 거치며 '환자'가 됐다.

이경에게 있어 기억과 생존자의 죄책감은 그녀의 트라우마를 촉발시킨 사건이 두 오빠들의 소름끼치는 죽음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녀에게 트라우마의 경험은 지속적인 우울증 상태뿐만 아니라 플래시백과 불안 증세를 동반한 갑작스런 PTSD 의 분출로 나타난다.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에 대해 슬퍼할 수 없는 「부처님 근처」의 주인공의 경험도 마찬가지다. 이 경험들은 그녀에게 PTSD 의 분명한 사례를 남겼다. 이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한 섬뜩한 꿈과 우울증 상태와 강박적인 행동의 예들로, 출산으로 죽음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의 주인공에게 '부끄러움'의 부족은 그녀의 정신 상태를 규정하는 중추적인 감정이 된다. 정서 장애가 있는 그녀는 전쟁의 영향과 어머니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겪어야 했던 시간들을 목격함으로 인

해 성인이 될 때까지 고통을 겪다. 단순히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에도 촉발된 우울증, 불안감, PTSD 로 인해 트라우마를 경험한다. 「그 가을의 사흘동안」의 의사는 자기의 강간과 아기의 낙태로 인한 고통을 전쟁이 끝난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안고 간다. 그녀는 PTSD 의 완벽한 예로서 기억 억압의 초기 증상, 자신에게 위험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과잉행동, 플래시백이나 꿈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는 소리, 그리고 의식의 상실까지도 보여준다. 『엄마의 말뚝』과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확장판에서는 전선에서 돌아온 군인의 PTSD 의 원형을 관찰할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의 오빠는 전혀 반응이 없고 감정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다. 주인공의 어머니는 전쟁 중에 아들을 잃은 기억과 생존자의 죄책감을 뒤집어쓰게 될 때까지 안고 살아간다. 이러한 모든 인물의 분석은 가족 상실을 트라우마의 주요 유발 요소로 나타내는데, 이는 개인적이긴 하지만 우울증, 불안, PTSD 의 흔한 증상이다.

3 장에서는 트라우마를 대표하는 또 다른 측면, 즉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관찰한다. 박완서는 전쟁의 심리적 영향과 이것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에 대해 상세하고도 유려하게 서술하면서, 동시에 치유 가능성도 제시한다. 소설들의 주인공들은 단순히 전쟁의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들이다. 그들의 증상에 의해 제한되고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충격적인 과거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필요성에 의해 자유로워진다. 치유의 길은 시행착오 중의 하나이다. '투쟁도주 반응'에 의지해 이 모든 등장인물들은 그들의 과거와 개인적인 악마를 피해 도망치고 부정하려 했으나, 이러한 '탈출'의 시도는 치유에 실패하게 되고, 불행의 상태를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강화시켰다. 실패 후 성공이 오고, 트라우마로부터 탈출하려 할 때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후, 반대로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부모의 집을 파괴하거나, 자신이 느끼는 비탄에 혼란을 주거나, 감정을 느낄 수 있거나, 자신을 용서하게 되는 등, 비록 모양은 다르지

만 이 모든 행동은 각 등장인물들의 트라우마 인식과 그 쇠사슬을 제거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 장을 통해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는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었다. 과거를 극복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과정이며,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길은 없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박완서는 희망을 가르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자각을 고취한다.

4 장에서는 박완서 전쟁소설의 트라우마의 심리적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작가 자신과 창작물에 대한 연구를 활용하여 저자의 개인적 트라우마를 엿보기 위한 방법으로 소설 뒤에 숨은 창조적 과정을 보고자 했다. 작가는 심리학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 해박했는데, 그것은 그녀의 소설을 정신분석으로 강조했던 사실이지만, 또한 작가의 많은 수필과 소설에서 증명해낸 자기의식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정신건강의 예들을 다룰 때, 잠재의식은 정신의 의식적인 작용에서 지각되는 것 위에 군림하며, 따라서 자신을 이해하는 길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허구와 자전의 구별, 의식의 영향과 잠재의식의 본능에 의존하여, 이 모든 소설의 가지고 있는 저술 의도를 분석했다. 이것은 전쟁 트라우마와 개인의 경험을 정직하게 묘사하려 할 때 작가과 개인 트라우마의 투쟁과 그 것을 어떻게 작품으로 이해한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강조한다. 박완서 자기를 쓰고자 하는 욕망은 분리된 '허구적' 자전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허구적 소설로 사람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은 높은 자전적 내용을 낳았으며, 여러 가지 상호텍스트성을 예로 들 수 있다. 박완서는 전쟁으로 겪은 상처로 인해 복합적인 전쟁문학을 만들어냈다. 동시대의 많은 작가들처럼 그녀는 국가 역사의 비극적인 시기를 목격했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작가의 집착은 예상을 뛰어넘어 자기만의 문학으로 귀결되었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전쟁과 그 기본적인 요소인 죽음과 최전선의 폭력을 서술하는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는다. 작가는 전쟁의 덜 알려진 측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의 오래 지속되는 악력에 관심을 둔다. 전쟁의 심리적 영향, 용서할 수 없고 차별할 수 없는 트라우마의 도달, 그

리고 주제에 대한 작가의 지식을 알 수 있다. 자기 발견과 치유를 향한 작가의 길은 트라우마의 심리적 범위와 그 형태의 발현에 대한 진정한 증언을 낳았다. 이는 저자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헤치고 일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심리적, 여성적 경험을 조명하는 데 필요한 문학의 유형을 만들어냈다. 이 연구를 통해 박완서가 쓴 허구적이고 자전적인 문학 작품들에 집중함으로써 작가가 독자들을 위해 내놓은 내용 이상의 다양한 층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은 트라우마 문제와 한국전쟁의 숨은 영향에 대한 교육의 원천이 된 글쓰기의 시작 이유로 이해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소설들에 존재하는 심리적 내용과 트라우마를 서술한 작가의 경험을 더욱 인정하고 탐구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요소들은 박완서 작품의 정신분석적 잠재력을 드러내면서 전쟁으로 인해 입은 상처와 관련하여 작가가 창작한 글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박완서, 『나목』, 세계사,1995,

_____, 「부처님 근처 」,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 「 그 가을의 사흘 동안」,『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 문학동네, 2013.

_____, 『엄마의 말뚝』.열림원. 2007.

_____,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세계사, 2012.

_____,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세계사, 2012.

_____, 「다시 6 월에 전쟁과 평화를 생각한다」, 『여자와 남자가 있는 풍경』, 한길사, 1978, 109 면.

2. 국내 자료

권영민, 「박완서와 도덕적 리얼리즘의 성과」, 『박완서 문학 앨범』, 웅진출판사, 1992.

김영미, 「1970 년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은폐와 폭로의 문제」. 한국현대문학연구, vol 47, 2015, 413-333 쪽.

김윤식, 「박완서과 박수근」, 『박완서론』, 삼인행, 1991.

김정은,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목소의 의미 연구」,

김주연, 「순응과 탈출- 박완서의 근작 2 편, 「부처님 근처」와 「지렁이 울음소리」, 『문학과지성』, 1973 겨울.

박성천, 「박완서 소설의 상호텍스트성 연구-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2012.

박완서·호원숙 외, 『모든 것에 따뜻함이 숨어 있다: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씽크빅, 2011.

송명희·박영혜, 「박완서의 자전적 근대 체험과 토포필리아-『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 2003, 43-70 쪽.

이경재, 「박완서 소설의 오빠 표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2011.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이태동, 「나목의 꿈」, 『박완서』, 이태동 편,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이향우·나소정, 「복수와 치유의 전략과 서사」, 『인문과학연구논집』,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7-32 면.

정규웅, 「『목마른 계절』의 세계」, 『박완서론』, 삼인행, 1991.

정해진, 「박완서 소설 연구 -전쟁 체험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정호웅, 「상처의 두 가지 치유방식」, 『작가 세계』, 8 호 봄, 세계사, 1991.

조인순, 「박완서 체험의 글쓰기를 통한 트라우마 치유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5.

최정자, 「박완서 소설의 전쟁체험 양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1.

홍혜미 ,「박완서 문학에 투영된 6.25 전쟁」. 단산학지, vol. 5, 1999.

3. 국외 자료

Berger, James. “Trauma and Literary Theory.” Review of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Representing the Holocaust: History, Theory, Trauma; Worlds of Hurt: Reading

the Literatures of Trauma. Contemporary Literature 38.3 (1997): 569–582. Jstor. Web. 1 August 2015.

Caruth, Cathy.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George Bernard Shaw, "In the Days of My Youth," Sixteen Self Sketches, Constable. M.A.P. (1949).

Habeeb, Zahraa Qasim, "Writing Trauma in Iraq: Literary Representations of War and Oppression in the Fiction of Sinan Antoon" (2015). MSU Graduate Theses.

Herman, Judith L.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New York: BasicBooks, 1997.

Janice L. Doane, Trauma and Survival in Contemporary Fiction (review), MFS Modern Fiction StudiesMFS Modern Fiction Studies , Volume 50, Number 2, Summer 2004, pp. 522-524

Laurie Vickroy, Trauma and Survival in Contemporary Fiction. Charlottesville: U of Virginia P, 2002

Samson, Fiona Creative Writing in Health and Social Care". Jessica Kingsley Publishers. 2004

<Abstract>

Korean War Trauma and Recovery: A psychoanalytical study on the novels of Park Wan Suh

Andreea Popa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realize a psychoanalytic research on Park Wan Suh (1931- 2011)'s novels, with the purpose of better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features of her literary creations. Park Wan Suh has started her career with the debut novel 'The naked tree' (1970) and she is widely acclaimed as one of the best writer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her approaches raging from feminism, social criticism to confessional content. Therefore, the existent research on her literary creation is various as well, and continuously emerging, as she is an author of great interest. One of the topics of great interest in her works, is the Korean war, which due to her being a survivor of such terrible event, becomes even more intriguing. Therefore, in this thesis through an in-depth research into Park Wan Suh's war literature, we reveal the wide psychological insight it provides into the issue of war trauma and the psychological impact of the Korean war, as well as set the base for a new way of looking at the author and her relationship with her creations.

In chapter 2, we will focus on Park Wan Suh's main war novels, 'The naked Tree' (1970), 'Who ate all the Shinga' (1992), 'Is that mountain really there?'(1995), 'Buddha's story'(1973), 'We teach shame' (1974)'Three days in that autumn' (1985), 'Mother's stake'(1980-1991) and relying on the existent research on trauma and its symptoms. By observing each character's individual experience with the Korean war, and the trauma it has inflicted on their psyche, we meant to create a clearer image of what experiencing trauma is in terms of symptoms, and in which way Park Wan Suh has managed to encompass that in her novels. While family loss becomes

the triggering traumatic event, depression, Anxiety, PTSD, Survivor's guilt, and OCD are the main behaviors which sum up, in various forms, each individual's experience with war trauma. By looking at all these characters we will understand the versatility of trauma, the unexpectedness and finally the author's own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matter, as well as the way she turned each character into a perfect case study for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the Korean war on the Korean people, as well as its psychological effects.

In chapter 3 of this paper, we aim to complete the understanding process of the experience of trauma. While the previous chapter meant to clearly underline the originating point of trauma, and its manifestations, in this chapter the topic will be healing trauma. While Park Wan Suh, beautifully creates a detailed account of the psychological impact of war and the ways in which it can haunt somebody for years in a row, in this chapter we meant to see exactly what her stance on healing trauma is. By analyzing each character's journey through trauma, the question of how it can be overcome rises. Focusing on the same character of the same novels which were analyzed in the previous chapter, we will observe their approach on dealing with trauma and its consequences. Escaping or Fighting are the key words for this analysis, which will be able to portray two opposite approaches when dealing with trauma, with the main goal of offer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human instincts when caught in the 'flight-or fight' momentum, as well as the final choice's effects.

In chapter 4, using what we have discovered of the psychological content of trauma in Park Wan Suh's novels, as well as the already existent research on herself and her creations we tried to better understand the creative process behind all these novels as the path to better understand the author's own experience with war trauma. After analyzing the psychological response of her characters to the Korean war, we cannot ignore the author's own traumatic past having lost family to the Korean war, the death of her older brother haunting many of her novels. If through the analysis of so many of her novels, we have already understood her knowledge on the topic of psychology and trauma, as well as her connection to the national tragedy of the Korean War, now it is time to better understand the author's own experience, though the same two main concepts we applied to her characters as well: symptoms and healing. Starting with

the wounds she experienced from the war, Park Wan Suh created a complex literature of war. Like many of her contemporaries she bears witness to a tragic time in the national history. However, her preoccupation with the war went beyond the expected, beyond the trend and resulted in a literature of her own. And in this chapter, the main question if how we can use her own literature to better understand the author's own experience with Korean war trauma and the ways in which it influenced her writing. The goal of this chapter is to expand the knowledge on the psychological aspect of her novels, from the individual experience of her character to the better understanding her literature from the point of view of her own symptoms of trauma, and her own journey to healing implied in the choices made in the creative process.

Park Wan Suh is a great writer of her time, acknowledged for the variety and depth of her creations. However, on the topic of the Korean War she is a master. Starting with the wounds she experienced from the war, Park Wan Suh created a complex literature of war as her preoccupation with the war went beyond the expected, beyond the trend and resulted in a literature of her own. She does not stop herself in her path to raise awareness, to the common, basic traumatic elements of war, like death, and violence on the front lines. She raises the bar and draws attention to the less known aspects of the war, its impact on those not directly involved and the long-lasting grip it has. We were made aware of the psychological impact of war, the unforgiving and undiscriminating reach of trauma, as well as her knowledge on the topic. Her own road to self-discovery and healing, resulted in true testimonies of the psychological reach of trauma and its forms of manifestation. This not only allowed the author to work through her own trauma, but also created a type of literature needed to shed light on the psychological and on the feminine experience of the war.

*Keyword(s): Park Wan Suh, war trauma, war literature, PTSD, survivor's guilt, OCD, autobiographical novels, fictional novels
Student number: 2016-22569